

# 서울경제

SEOUL ECONOMIC BULLETIN  
November 2013 vol.104

## 이달의 이슈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김미현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1) : 지식기반제조업  
김묵한 · 장윤희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1)  
박희석 · 오도영  
**인포그래픽스**  
서울에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서울경제분석센터

##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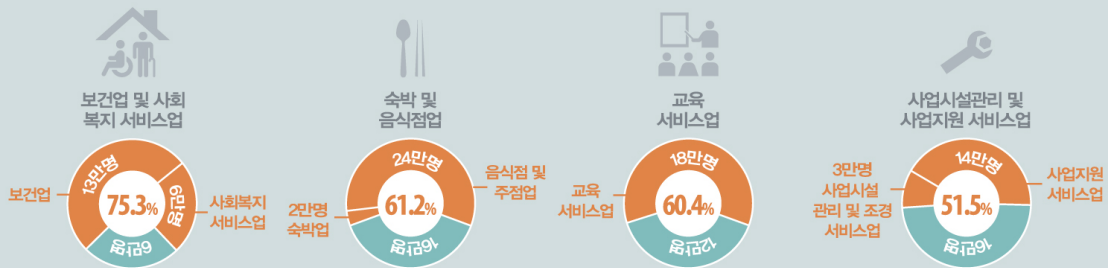
생산/소비/고용/물가  
부동산/금융/수출입  
**부록**  
통계표

## 서울에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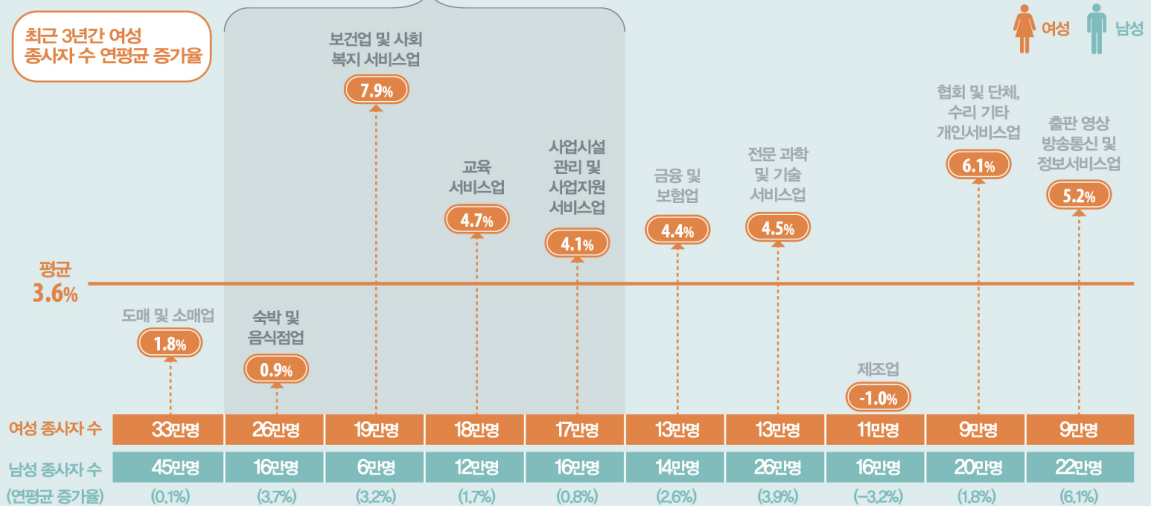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3%, '숙박 및 음식점업' 61.2%, '교육 서비스업' 60.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1.5% 등 4개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1순위.

여성 종사자 수 비율이 50%를 넘는 산업



최근 3년간 여성 종사자 수 연평균 증가율



- 이달의 이슈** 3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김미현(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 10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책임연구원)

- 생생리포트** 23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1)**  
**: 지식기반제조업**  
김목한(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장윤희(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 39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1)**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오도영(LSE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과정)

- 인포그래픽스** 49 **서울에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박희석(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  
장윤선(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경제동향** 57 **요 약**
- 59 **생 산**
- 61 **소 비**
- 62 **고 용**
- 65 **물 가**
- 66 **부동산**
- 68 **금 융**
- 76 **수출입**  
곽지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이소은(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연구원)

- 부록** 81 **통계표**

#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창출



김미현\*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liebe819@welfare.seoul.kr

## 1.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배경

200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전자바우처는 사회서비스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으며, 2012년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서비스의 영역 및 기능을 확대시켰다. 최근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추진배경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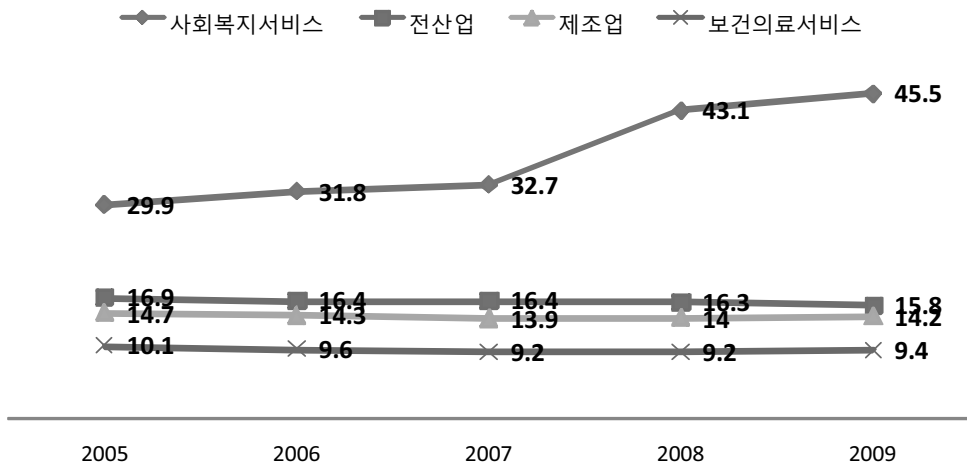
먼저, 인구구조 및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였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및 전통적 의미의 가족 해체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은 기존에 가족이 담당하였던 돌봄 등의 사회서비스가 이제 더 이상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국가적 보호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현) 서울시복지재단 연구개발부 선임연구위원, 사회복지학 박사  
서울시 사회서비스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2013)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연구(2012)  
서울시 사회복지관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201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실태 및 이용자 욕구조사(2011)  
사례관리 서비스표준화 및 원가측정 연구(201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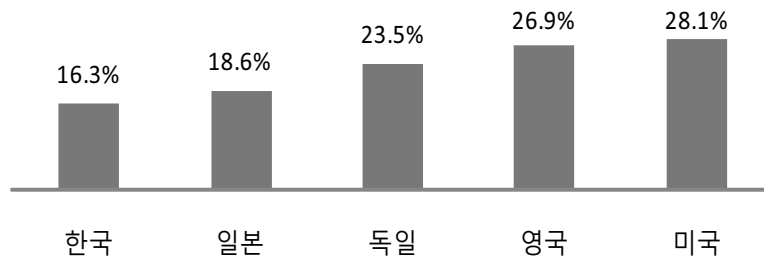
\* 본고는 주로 저자의 2012년, 2013년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부분적으로 편집·수정하여 작성하였음.

다음으로 고용 없는 성장의 추세 속에서 사회서비스 분야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비중이 낮은 반면, 취업유발계수는 타 분야에 비해 높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며, 따라서 잠재적 일자리 창출의 잠재력이 크다. 이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취업유발계수 및 사회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산업간 취업유발계수 비교

출처: 201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림 2] 사회서비스업 고용비중( '11년) 비교

출처: 201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자료를 토대로 작성

셋째,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동력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1990년대 유럽에서 주로 논의되어왔던 사회투자론(social investment)<sup>1)</sup>에 힘입어 노동공급의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소득계층의 양극화와 근로 빈곤층(working poor) 등 신빈곤층의 증가로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며, 사회투자를 통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고 실업과 가난 등의 대물림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넷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 확대이다. 전통적인 방식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급자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사도를 거쳐 시·군·구 및 읍면동을 통해 제공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은 확보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약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 이용자 및 공급기관의 도덕적 해이, 서비스 중복 수혜, 행·재정적 관리 비용 등의 발생으로 비효율성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왔다. 더욱이 취약계층 외에도 서비스 욕구가 있는 일반시민들을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시킨 사회서비스의 경우 잠재적 수요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과거 공급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 정비를 통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리와 운영에서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되었다.

## 2.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현황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 창출’은 정부가 그동안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행해온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사회서비스 분야는 저소득층 주부, 여성 가장, 노인·장애인 등 반숙련·저숙련 인력의 취업이 용이하다는 점, 취업 취약계층의 긴급한 취업수요에 비교적 큰 비용 없이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다른 사업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로부터의 유입이 많아 타 노동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적다는 측면에서 새로운 일자리 분야로서 주목을 받아왔으며, 사회서비스 사업의 확대를 통해 고용취약 계층에 대해 연간 95천여 개(서비스제공인력)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보건복지부, 2011·2012).

1) 사회투자국가, 사회투자정책, 사회투자론 등의 용어는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사회의 미래패러다임으로서 사회투자론을 수용하는 입장과 사회정책 차원의 대안패러다임으로서 사회투자론을 수용하는 입장이 있다. 전자는 사회투자‘국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후자는 사회투자‘전략(혹은 정책)’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김연명, 2007; 김미현 2013 재인용).

2012년 정부는 8개 부처의 59개 사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총 91,547억원 규모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의 양적 성장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서비스 제공인력의 고용조건 등 질적 측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201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활동지원이 35,000명(36.8%)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53명(20.3%), 노인돌봄서비스 16,224명(17.0%) 순이다.

< 표 1 > 2012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현황

(단위: 명, %)

세부 사업명	일자리	비율
<보건복지부>	95,192	100
가사간병방문도우미	1,680	1.8
노인돌봄서비스	16,224	17.0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2,750	2.9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543	2.7
아동안전지킴이	2,270	2.4
요보호아동그룹홈운영지원	832	0.9
장애아동가족지원	3,700	3.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53	20.3
장애인(사회)활동지원	35,000	36.8
장애인일자리지원	10,800	11.3
민간사회복지자원 육성 지원(신규)	40	0.04

출처 : 보건복지부 주요업무참고자료(2012)를 토대로 재구성(김미현 외, 2012)

또한 바우처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의 8대 바우처 종사자는 56,721명이며, 서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17.89%(10,145명)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는 총 종사자 56,721명 중 여성종사자가 90.6%(51,385명)로 남성종사자 9.4%(5,336명)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총 종사자 10,145명 중 여성종사자의 비율이 88.2%(8,952명), 남성종사자의 비율이 11.7%(1,188명)로 전국 분포와 유사하나 남성의 비율이 전국분포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종사하는 제공인력들의 경우 대부분 임시고용, 기간제 고용, 단시간 노동 등의 고용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안정성 또한 매우 취약

약한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고용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도, 특히 약 90% 내외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여성이 더욱 불리한 고용환경에서 일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표 2 >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도별 종사자 고용 현황('12.9월)

(단위: 명, %)

구분 (전국 대비)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산모신생아		가사간병		지역사회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동 언어발달		총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9,640	(17.0)	27,443	(48.38)	2,695	(4.75)	2,939	(5.18)	9,004	(15.87)	4,932	(8.70)	68	(0.12)	56,721 (100.00)															
	51	(0.53)	9,589	(99.47)	3,205	(11.68)	24,238	(88.32)	0	(0.0)	2,695	(100.0)	11	(0.37)		2,928	(99.63)	1,682	(18.68)	7,322	(81.32)	384	(7.79)	4,548	(92.21)	3	(4.41)	65	(95.59)	
서울	9	(17.65)	855	(8.92)	1,035	(32.29)	5,932	(24.47)	-	-	404	(14.99)	2	(18.18)	248	(8.47)	76	(4.52)	662	(9.04)	66	(17.19)	855	(18.80)	-	-	1	(1.54)	10,145	(17.89)

###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의 과제

사회서비스의 양적 규모는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을 둘러싼 전달체계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확립되지 않은 점이나 종사자의 전문성이 발휘되도록 고용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 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으며, 특히 여성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sup>2)</sup>. 서비스제공자들의 근로환경이 서비스의 전문성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된다.

2013년 서울시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정책을 검토한 결과, 총 257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는 복지건강실과 여성

2) 노인돌봄기본 및 종합, 가사간병, 여성장애인홈ヘル퍼사업의 서비스 제공인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FGI(focus group interview) 결과, 기본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급여 제공과 처우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1년 단위의 계약직이긴 하나, 계약파기에 대한 불안보다는 급여체계에서 근속년수의 반영이 없고 높은 업무강도에 비해 복리후생이 열악하며 수당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체력적 어려움(종사자의 대다수가 50대임)과 생계유지의 어려움, 사회서비스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해 이용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하게 될 위협 등의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2012, 김미현 외).

가족정책실의 사업만을 분류한 것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확장된 사회서비스의 개념에서 본다면 서울시 전체 사회서비스 정책의 수는 훨씬 더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표 3>은 서울시 복지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257개의 사업을 기능과 대상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여기에서 제시한 숫자는 서비스의 크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나, 기능별-대상별 사회서비스 분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 표 3 > 기능별-대상별 서울시 사회서비스 정책분류<sup>3)</sup>

구분	대상별					합계(%)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	
상담 및 치료	7	7	7	2	1	24(5.6%)
재활 및 자활 (현금성지원)	13(11)	28(13)	17(13)	36(7)	1(1)	95(45) 22%(10.4%)
돌봄	15	12	15	17	1	60(13.9%)
정보제공	8	8	6	2	2	26(6%)
역량개발	6	4	2	2	2	16(3.7%)
사회참여지원	7	5	9	2	3	26(6%)
건강관리	40	35	37	26	1	139(32.2%)
시설운영지원 관련시설이용	11	8	7	5	2	33(7.6%)
기타	3	7	1	0	2	13(3.0%)
합계	110 (25.5%)	114 (26.4%)	101 (23.4%)	92 (21.3%)	15 (3.5%)	432(100%) <sup>4)</sup>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시 사회서비스 정책은 건강관리(32.5%), 돌봄(13.9%), 재활 및 자활(22%) 등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사회서비스 일자리 분포에서도 대체로 이와 일치한다. 따라서 향후 일자리 창출에서도 현재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기능들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기획되었으나, 현재 비율이 낮은 영역, 즉,

3)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제시한 상담·재활·돌봄·정보의 제공·관련 시설 이용·역량개발·사회참여 등 7가지 기능별 분류를 기본으로 하되 '건강관리' 기능을 추가하고 명칭을 다소 수정·보완하여 사업을 분류하였다. 또한 서비스 대상자를 아동, 성인, 노인, 장애인, 다문화 등으로 구분하였다.  
4) 432개의 사업은 총257개의 사업에서 대상이 중복된 경우를 합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자세한 내용은 김미현곽유나(2013)를 참고하기 바란다.



정보제공, 역량강화, 사회참여지원 등에서도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서비스의 영역 및 기능 등이 대폭 확대되었으나, 학계 및 현장을 비롯하여 대다수 영역에서 아직 사회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임을 감안한다면, 또한 사회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시정 전반에 걸쳐 향후 보다 통합적인 시각을 가지고 유기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이 검토되고 입안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생태복지를 비롯하여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과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지속가능하도록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사회서비스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사회서비스는 개인적 위험이 아닌 사회적 위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인 만큼 사회적 연대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선별적 복지 혹은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는 어느 경우에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publicness)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성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본적 토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김미현·이수영·이태수·김도한·홍연준·이은혜·강현(2012), 사회서비스 종사자 시범사업 모델 개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김미현·곽유나(2013), 서울시 사회서비스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 김미현(2013), 사회투자론과 사회서비스 성과, 복지가이슈투데이 vol. 8, 서울시복지재단.

##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시장분석센터 책임연구원

smjung@kli.re.kr

### 1. 머리말

지난 몇 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업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취업자가 증가하였고, 여성에 취업자 증가가 집중되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여성취업자가 감소하는 동시에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여성 서비스업 부문의 전문직종 취업자가 증가하는 변화가 진행 중이다. 상대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라 볼 수 있는 여성 전문직 서비스업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여성에게 양질의 새로운 고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Bosch & Wagner(2005)는 유럽 여성 서비스업 연구에서 여성노동의 대안을 공공서비스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보고 있으며, OECD의 연구에서도 여성고용률과 사회서비스업 고용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이는 다수의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업을 통한 여성 고용률의 양적 증가가 질적 측면의 어떠한 변화를 동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여성을 중심으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이 글은 노동리뷰(2012) 8월호에 게재된 여성고용과 사회서비스업을 바탕으로 수정 및 재구성한 것이다.

로 사회서비스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적 증가를 넘어 질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사회서비스업의 세부산업은 산업의 전부를 포함하는 산업과 일부를 포함하는 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sup>1)</sup>.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일부를 포함하는 산업은 제외하고 전부를 포함하는 산업으로만 구성된 광의의 사회서비스업을 다루도록 한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간병인, 보육관련 일자리 등 저임금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부 포함되는 산업인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S),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으로 분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일자리를 분석에 포함하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 분석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을 사회서비스업으로 칭하고 각 산업의 특징을 분석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이용해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전반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사회서비스업 세부적으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사회서비스업의 인적속성과 임금 및 근로조건의 차이를 비교해 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 2.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 1. 사회서비스 부문으로의 여성 고용 확장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남성 중심의 고용구조는 90년대 중반 이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여성 취업자의 빠른 증가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취업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 38.2%에서 2012년 41.7%로 증가하였고, 절대 수도 두 배 가량 증가해 2012년 10,294천 명을 기록하였다. 또 여성 고용률도 빠르게 증가해 남녀 고용률 격차도 줄어들었다.

1) 9차 산업분류에 따르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Q)은 사회서비스업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S),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T),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에 사회서비스업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최근 산업별 취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눈에 띈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 및 사회복지업(Q)으로 구성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05년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3%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3년 1~10월 평균 4,259천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7.0%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의 비중은 2005 58.3%에서 2013년 1~10월 평균 65.2%로 증가해 사회서비스업의 여성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증가는 여성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는데, 2005년 18.6%에서 2013년 1~10월 26.5%로 증가해 전체 여성취업자의 1/4이 넘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Wagner(2005)는 여성의 고용과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상호관계가 있다고 보며, 특히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의 여성고용은 여성 총고용과 상관관계가 높음을 주장한다. 즉 일하는 여성은 가정 내 일을 맡아 줄 서비스 부문이 필요하고, 서비스 부문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성의 소득은 서비스 부문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 소득은 다시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소비되어 이는 곧 사회서비스 부문의 증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표 1>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단위 : 천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10월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3,034	3,184	3,277	3,466	3,861	3,912	3,948	4,094	4,259
(취업자 대비 비중)	(13.3)	(13.8)	(14.0)	(14.7)	(16.4)	(16.4)	(16.3)	(16.6)	(17.0)
여성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1,768	1,903	1,958	2,087	2,377	2,482	2,531	2,650	2,775
전체 취업자에서 사회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	13.3	13.8	14.0	14.7	16.4	16.4	16.3	16.6	17.0
사회서비스업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	58.3	59.8	59.7	60.2	61.6	63.4	64.1	64.7	65.2
여성 취업자 중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비중'	18.6	19.6	19.9	21.1	24.3	25.0	25.1	25.7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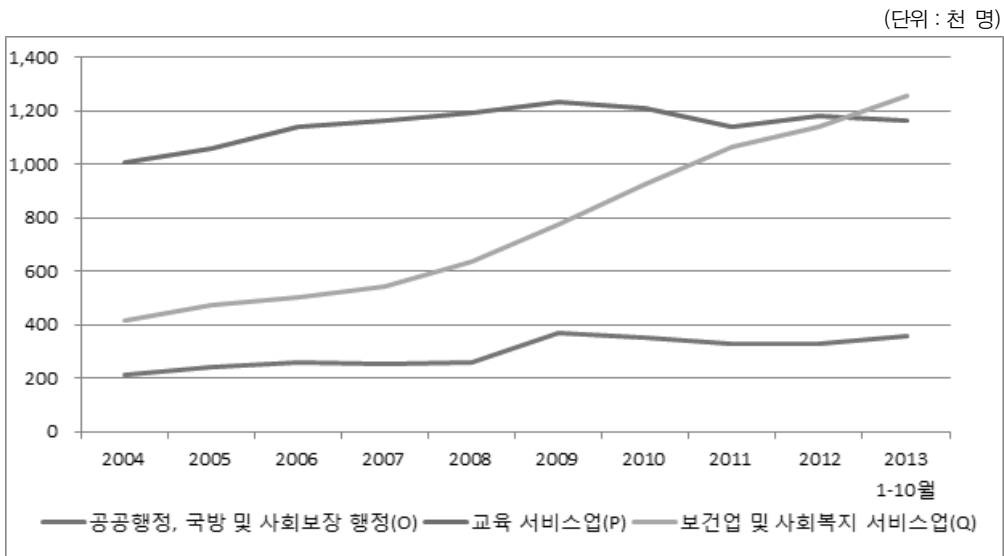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또한 사회서비스를 구성하는 교육, 의료, 복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사회적 인프라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한다. 사회서비스 부문에 존재하는 일자리들은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므로 고용이 안정적이면서 동시에 평균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들이기 때문이다(김혜원 외, 2006).

## 2.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특징

[그림 1]에서 보듯 여성 취업자의 사회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급격한 증가인 것으로 보인다. 2005년 471천 명이던 보건 및 사회복지업 취업자는 2013년 1~10월 평균 1,256천 명으로 빠르게 양적 증가를 했고, 여성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9%에서 12.0%로 세 배가량 증가했다(표 2 참조).

자영업 중심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의 서비스업 구조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전문영역인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임금근로 비중이 각각 80%, 97%의 높은 수준이다. 이렇듯 비교적 임금근로자 중심의 전문화된 경향으로 취업자 구성이 변화하는 것은 서비스업의 고용의 질 측면에서 새로운 고용창출의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림 1] 여성 사회서비스업 취업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여성 산업별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

	취업자				증감				비중			
	2005	2009	2011	2013 1-10월	2005	2009	2011	2013 1-10월	2005	2009	2011	2013 1-10월
전체	9,526	9,772	10,091	10,482	162	-102	177	185	100.0	100.0	100.0	100.0
A	850	738	683	665	-16	-45	0	-6	8.9	7.6	6.8	6.3
B	1	2	1	2	0	0	0	0	0.0	0.0	0.0	0.0
C	1,371	1,160	1,273	1,248	-78	-110	36	-15	14.4	11.9	12.6	11.9
D	13	15	13	15	0	-2	1	3	0.1	0.2	0.1	0.1
E	7	8	12	13	2	-1	3	2	0.1	0.1	0.1	0.1
F	158	163	156	138	-3	-12	-10	-10	1.7	1.7	1.5	1.3
G	1,754	1,632	1,610	1,653	-40	-35	-24	14	18.4	16.7	16.0	15.8
H	101	94	119	132	12	-1	10	2	1.1	1.0	1.2	1.3
I	1,419	1,294	1,221	1,272	-2	-102	-27	28	14.9	13.2	12.1	12.1
J	206	179	184	185	19	11	6	4	2.2	1.8	1.8	1.8
K	376	382	425	444	2	-32	34	6	3.9	3.9	4.2	4.2
L	157	176	177	173	18	7	2	1	1.6	1.8	1.8	1.6
M	190	262	283	297	17	0	8	7	2.0	2.7	2.8	2.8
N	300	407	482	521	43	1	43	16	3.1	4.2	4.8	5.0
O	239	370	329	355	26	108	-21	20	2.5	3.8	3.3	3.4
P	1,058	1,233	1,139	1,165	53	42	-70	-16	11.1	12.6	11.3	11.1
Q	<b>471</b>	<b>774</b>	<b>1,063</b>	<b>1,256</b>	<b>54</b>	<b>140</b>	<b>140</b>	<b>119</b>	<b>4.9</b>	<b>7.9</b>	<b>10.5</b>	<b>12.0</b>
R	159	157	177	150	24	-10	25	-14	1.7	1.6	1.8	1.4
S	565	583	595	627	29	-56	19	12	5.9	6.0	5.9	6.0
T	126	140	147	172	5	-5	4	12	1.3	1.4	1.5	1.6
U	6	3	4	2	-1	0	1	-1	0.1	0.0	0.0	0.0

주: 1) 9차 산업분류 기준임.

2)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E: 하수폐기물, 환경 등, F: 건설업, G: 도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 임대업, M: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N: 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기타개인서비스업, T: 가구내서비스업, U: 국제기관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 구성을 보면, 2012년 공공행정서비스의 평균연령이 45.5세로 가장 높은 반면, 보건업이 34.8세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3 참조). 비교적 보건업과 교육서비스업에서 젊은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 15~39세 비율에서 보건업이 68.3%, 교육서비스업이 59.1% 차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공행정과 사회복지업은 40대 이상의 중고령층 비중이 절반이 넘는 등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60세 이상의 비중이 17.8%로 고연령 여성 취업자가 많음을 보이고 있다.

<표 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연령구성 (2012년)

(단위 : 세, %)

	평균연령	연령대 구성					전체
		15 ~ 29세	30 ~ 39세	40 ~ 49세	50 ~ 59세	60세이상	
여성취업자	43.5	19.6	20.5	26.2	20.9	12.7	100.0
공공행정서비스	45.5	11.5	28.7	24.5	17.5	17.8	100.0
교육서비스업	37.1	26.2	32.9	30.1	9.2	1.5	100.0
보건업	34.8	41.2	27.1	19.5	10.0	2.2	100.0
사회복지업	43.1	17.5	23.1	29.2	20.0	10.2	100.0

자료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2012년 기준 여성 취업자의 63.3%는 고졸 이하의 학력구성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여성 사회서비스업은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비중이 더 높은 편이다. 사회서비스업의 세부 산업별을 보면,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의 특성상 대졸 이상 학력 비중이 64.9%로 높은 수준인 반면, 고졸 이하의 저학력의 비중은 20% 수준에 그쳐 고학력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보건업 역시 전문영역이라는 특성상 전문대졸 이상 학력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사회복지업은 전문대졸 이상과 고졸 이하가 각각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는 학력구성의 양극단에 몰려있는데, 대졸 이상이 42.8%인 동시에 중졸 이하도 23.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학력구성 (2012년)

(단위 : %)

	전체	중졸 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여성취업자	100.0	25.4	37.8	14.5	22.2
공공행정서비스	100.0	23.2	22.9	11.1	42.8
교육서비스업	100.0	2.7	17.7	14.7	64.9
보건업	100.0	5.2	31.0	41.2	22.7
사회복지업	100.0	17.5	31.7	28.6	22.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특징을 <표 5>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 임금근로자는 2013년 8월 기준 정규직은 59.4%, 비정규직은 40.6%이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나누어 보면, 먼저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은 48.5%로 여성 임금근

로자 전체의 비정규직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45.3%)와 시간제(32.2%)에 대부분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서비스업의 비정규직은 41.3%로 세부 고용형태는 기간제(23.9%), 시간제(21.8%), 특수고용(6.3%) 순으로 비중이 두드러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업의 경우 정규직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 2013년 8월 기준 82.0%를 기록했고, 비정규직 비중은 18.0%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는 대부분이 한시근로로 기간제(12.3%)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고, 시간제의 비중은 다른 사회서비스업과 다르게 낮은 수준(3.3%)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업은 보건업과 반대로 비정규직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으로 여성 사회복지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고용형태를 보면 기간제(34.2%), 시간제(28.0%)에 대부분 몰려있고, 파견근로(4.6%)에 일부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3년 8월)

(단위 : %)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고용형태별 구성(2013년 8월)					
	전체 임금근로	여성 임금근로	공공행정 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임금근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규직	67.4	59.4	51.5	58.7	82.0	47.5
비정규직	32.6	40.6	48.5	41.3	18.0	52.6
한시근로	18.8	22.8	45.8	26.4	15.2	37.9
기간제	15.1	18.1	45.3	23.9	12.3	34.2
계속고용	1.4	1.6	0.3	1.3	2.0	2.1
기대불가	2.3	3.1	0.5	1.2	0.8	1.6
비전형	12.1	13.2	3.2	6.6	0.2	4.6
파견	1.1	1.6	2.9	0.2	0.0	2.4
용역	3.5	3.4	0.0	0.0	0.0	0.6
특고	3.0	4.6	0.0	6.3	0.0	0.0
가내	0.4	0.9	0.0	0.1	0.0	0.8
호출	4.5	3.1	0.3	0.1	0.2	0.8
시간제	10.3	17.3	32.2	21.8	3.3	28.0

자료 :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근속기간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표 6>을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았을 경우 2012년 기준으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며 이는 2008년 이후 소폭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는 2008년 28.9%에서 2012년 27.8%로 소폭 하락했다.

먼저 장기근속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교육서비스업을 살펴보면, 2012년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61.5%로 2008년 대비 5.0%p 증가한 반면, 1년 미만 근속자는 소폭 감소해 2012년 22.2%를 나타내고 있다. 공공행정서비스도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이 2008년 이후 증가해 2012년 54.7%를 기록했다. 한편, 신규진입으로 볼 수 있는 1년 미만 근속자의 비중도 2008년에 비해 약 1.5%p 증가해 32.0%를 나타내었지만, 1~3년 미만 근속자는 크게 감소했다. 이는 공공행정서비스의 일자리가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않은 일자리로 양분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한편 보건업은 1년 미만 신규취업자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고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소폭 증가해 2012년 42.7%를 기록했다. 근속이 1년 미만인 신규취업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회복지업은 2012년 38.1%로 2008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3년 이상 장기근속자의 비중은 2008년 대비 2.6%p 감소하여 31.5%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근속기간(2008년, 2012년)

(단위 :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2008	2012	
<b>전 체</b>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b>1년 미만</b>	28.9	27.8	30.5	32.0	23.1	22.2	30.8	29.0	38.5	38.1	38.1
<b>1~2년 미만</b>	12.2	11.6	13.0	9.1	12.4	9.5	17.9	17.8	19.8	18.1	18.1
<b>2~3년 미만</b>	6.9	7.3	9.2	4.2	8.1	6.9	12.4	10.5	7.7	12.3	12.3
<b>3년 이상</b>	52.0	53.2	47.3	54.7	56.5	61.5	38.9	42.7	34.1	31.5	31.5

주 :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3.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임금 및 근로조건

여성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100)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업의 상대임금수준을 보면, 2013년 8월 기준으로 사회복지업을 제외한 공공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은 임금 근로자 평균 시간당 임금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서비스업의 상대임금 수준은 사회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사회복지업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표 7 참조).

시기별 변화를 보면, 공공행정서비스의 경우 비정규직 규모가 급격히 증가했던 2009년에 상대임금 수준이 크게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 소폭 감소했다. 교육서비스업은 2010년 크게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시간당 임금의 상대수준 추이

(단위 : %)

	여성임금근로	사회서비스업			
		공공행정서비스	교육서비스	보건업	사회복지업
2008	100.0	129.5	140.6	121.9	89.1
2009	100.0	103.4	144.6	120.1	81.9
2010	100.0	116.1	139.6	118.9	83.6
2011	100.0	118.5	141.9	113.7	83.9
2012	100.0	124.0	143.6	112.3	83.0
2013	100.0	120.0	147.6	115.2	83.1

주 : 1) 시간당임금=월평균임금/(평소1주당근로시간×368/84)

2) 각 연도 여성임금근로자의 임금을 100이라고 할 때 각 산업의 상대임금임.

3) 보건업과 사회복지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가능하여 사용가능한 시계열을 수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8월.

2013년 8월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를 보면, 사회서비스업 대부분이 여성 임금근로자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가입률과 수혜율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표 8 참조). 특히 보건업의 경우 취업자의 90% 이상이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복지 수혜율도 여성 임금근로자나 다른 사회서비스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의 경우 공공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여성

전체 임금근로자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에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고용보험 비가입대상이 제외된 영향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복지업은 여성 임금근로자보다는 높은 수준의 사회보험가입률을 나타내지만, 시간외수당과 유급휴가는 여성 임금근로자 전체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의 연도별 차이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9> 여성 사회서비스업의 사회보험가입 및 근로복지 수혜 여부(2013년 8월)

(단위 :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여성임금근로자	60.3	62.7	55.0	59.3	62.0	38.8	51.1
공공행정서비스	65.7	68.9	23.3	59.8	62.7	57.6	60.9
교육서비스업	67.9	68.2	30.0	65.2	66.8	53.1	62.7
보건업	92.1	93.9	89.5	91.1	85.6	52.5	76.9
사회복지업	77.1	81.4	79.2	74.2	65.6	28.0	51.0

주: 1)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만 계산하고, 지역가입자나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함.  
 2) 고용보험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함.

자료: 통계청(2013. 8),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원자료.

### 3. 맺음말

최근 사회서비스 부문으로 여성고용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제조업 중심의 고용구조가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서비스업도 지역업 중심의 도소매음식 및 숙박업에서 임금근로자 중심의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으로 구조 변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사회서비스 가운데 전문직 서비스업 부문인 보건 및 사회복지업의 증가 영향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 여성 사회서비스업 부문의 여성참여가 여성 고용률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세부 산업을 살펴보니 고학력의 전문영역인 교육서비스와 보건업은 비교적 낮은 연령이 많고 여성 취업자 대비 상대임금 수준이 높으며 사회보험가입 및 기업복지수혜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업과 공공행정서비스는 높은 연령, 저학력, 높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업 취업자의 일자리 질이 더욱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던 서비스들이 시장화되어 공식적인 노동시장으로 확장되면서 서비스 부문으로 이전되는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성이 지배적인 산업은 저임금과 경력불인정, 고용불안정의 현상이 수반되었다. 여성이 집중된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이 같은 현상이 확산되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 전반에 위험요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에게 더 나은 고용조건(임금, 고용보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나은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KLI**

#### 참고문헌

- Wagner Alexandra(2005), "Working in the Service Sector", Services and the employment prospects for woman Ch5.
- 김혜원 · 안상훈 · 조영훈(2006),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창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SEOUL ECONOMIC BULLETIN

# 생생리포트

## ■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1) : 지식기반제조업

김묵한(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장윤희(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원)

# 서울의 지식기반산업 실태조사 (1)

## : 지식기반제조업

김묵한 부연구위원 · hookman@si.re.kr

장윤희 연구원 · yhjang80@s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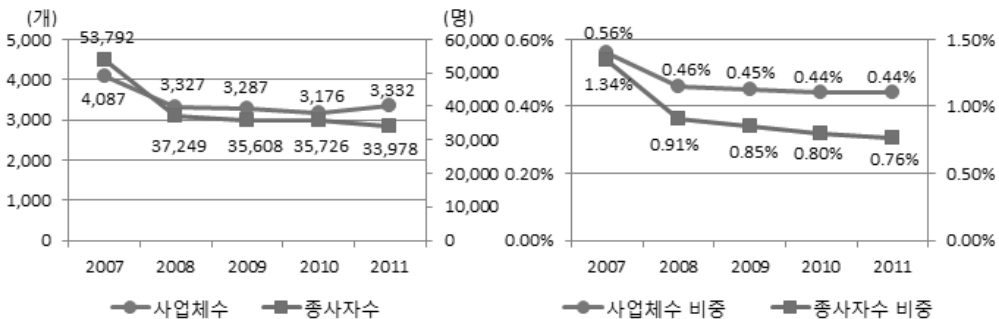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1.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조사 배경 및 개요
2.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업체 현황
3.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정책 수요 실태

## 1.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조사 배경 및 개요

### 1.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조사 배경

-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2004, 산업자원부)에서 규정한 지식기반제조업 9대 산업군에 따라 지식기반제조업을 정의
  - 기본계획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로 지정한 산업군 별 세부 산업을 산업연구원이 제9차 산업분류개정에 따라 재조정한 코드를 기준으로 지식기반제조업을 정의
  - 전자정보기기,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밀기기, 신소재, 환경, 항공우주 등 9개 산업군
- 2011년 기준으로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수는 3,332개, 종사자수는 33,978명
  - 전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44%, 0.76%로 종사자 비중이 사업체에 비해 다소 높으며, 이는 고용친화적인 제조업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
  - 지난 5년간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는 전반적인 서울시 산업구조의 서비스화 경향을 거스르지 못하고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그림 1]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세(2007~2011)

- ‘전자, 정보기기’, ‘정밀기기’, ‘메카트로닉스’의 3개 산업군이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약 70%를 차지
  - 전자, 정보기기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이 모두 30% 이상이었으며, 정밀기기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비중이 20% 수준

- 이외에 메카트로닉스도 사업체수 비중 20.0%, 종사자수 비중은 13.8%로 강세
- 대기업, 중견기업 위주의 반도체 산업군을 제외하면 기타 산업군의 비중은 각각 한 자리 수준에 불과

〈표 1〉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 9대 산업군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비중(2011년)

	사업체수 (개)	사업체수 비중 (%)	종사자수 (명)	종사자수 비중 (%)
전자, 정보기기	1,027	30.8	12,681	37.3
반도체	135	4.1	4,629	13.6
메카트로닉스	696	20.9	4,692	13.8
정밀화학	210	6.3	1,782	5.2
생물산업	95	2.9	1,159	3.4
정밀기기	688	20.6	6,303	18.6
신소재	167	5.0	819	2.4
환경	312	9.4	1,899	5.6
항공, 우주	2	0.1	14	0.0
합계	3,332	100.0	33,978	100.0

출처 : 전국사업체조사, 각년도

## 2.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조사 개요

-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 현황조사를 통해 현재 기초통계 자료로 산출이 불가능한 기업의 현황 및 정책수요 조사 실시
  - 2013년 10월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약 10% 수준인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원칙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의 보완 조사를 병행하는 설문 조사 실시
  - 지식기반제조 업체 실태 조사 후 지식기반제조업의 실제 업체 규모 및 업종 비중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1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준으로 산출한 가중치 적용
  - 내용으로는 업체형태, 인력현황, 재무현황 등의 업체현황과 창업여건, 혁신역량, 고용전망, 정책 수요 등의 정책수요 실태 조사를 포괄



〈표 2〉 지식기반제조업 산업분류

산업군명	분류번호	세부 산업명 (KSIC9)
전자정보기기	20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전자관 제조업, 전자축전기 제조업, 전자저항기 제조업, 전자카드 제조업,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기억장치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송장비 제조업, 이동전화기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축전지 제조업
반도체	20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메카트로닉스	203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승강기 제조업,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그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산업용 로봇 제조업,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정밀화학	204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농약 제조업,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 인쇄잉크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생물산업	205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원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정밀기기	206	방사선 장치 제조업,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속도계 및 직산계기 제조업,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신소재	207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합금철 제조업,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환경	208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타이어 재생업,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금속원료 재생업, 비금속원료 재생업
항공우주	209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2.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업체 현황

### 1. 업체 형태: 회사법인이 다수로 중소기업 대상 제품판매가 중심

- 회사형태는 회사법인 78.4%, 개인사업자 21.6%로 회사법인이 다수를 차지
  - 업종별로는 전기정보기기 산업군의 회사법인 비중이 83.9%로 높았으며, 메카트로닉스는 61.4%로 낮은 편
  - 규모별로는 10~49인인 경우 회사법인 비중이 96.8%로 가장 높았던 반면, 5인 미만은 개인사업자 비중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고객 유형별 매출유형은 중소기업이 절반 가까운 49.2% 차지
  - 다음으로는 개인소비자(16.3%)와 대기업(16.0%)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해외소재기업/수출 7.7%, 공기업 5.7%, 정부지자체(산하기관) 4.2% 순
- 주요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형태별 매출 비중은 제품형태가 80.5%로 가장 높았음
  - 연구개발이나 기술과 관련된 매출은 기술서비스 10.2%, 라이선스 0.4% 등의 매출은 임가공 8.4%. 기타(임대료 등) 0.6%와 비슷한 정도

### 2. 인력 현황: 기능직의 비중이 큰 반면 전문인력 수급은 원활하지 못함

- 2013년 9월 1일 기준 회사 전체 인력은 79,609.2명으로, 이 중 서울 사업장 종사인력은 42.2%에 해당하는 33,561.7명으로 조사됨
  - 이 중 31.7%가 기능(단순생산)직으로 가장 많고, 경영기획/사무관리 22.5%, 영업/마케팅 15.8%, 기술(엔지니어) 13.3%, 연구(R&D) 13.2%, 전문직 평균(1.2%) 순
  - 전자, 정보기기와 정밀기기 산업은 기능 인력이 가장 많았으나, 메카트로닉스 산업은 기능직보다 경영기획/사무관리 인력이 근소하게 많음
- 연구(R&D) 분야의 부족인력 충원이 가장 시급하고 기술(엔지니어)직의 충원수요도 높게 나타났으며 실제 향후 채용 계획도 이 두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경영기획/사무관리 인력의 수급이 가장 용이했으며, 영업 및 마케팅 인력과 기능직은 그 보다는 다소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수준

〈표 3〉 인력 분야별 수급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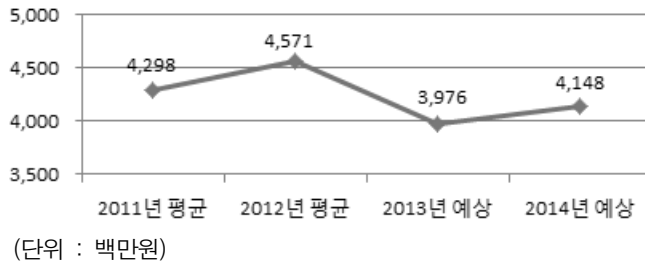
(단위 : %)

	매우 쉽게 구할 수 있다	쉽게 구할 수 있다	중간 정도이다	구하기 어렵다	매우 구하기 어렵다
경영기획/사무관리	6.3	46.7	28.4	15.0	3.6
영업 및 마케팅	0.1	27.0	45.7	22.5	4.7
R&D/기술(엔지니어)	0	21.3	36.4	33.3	9.0
전문	0	1.8	20.5	67.3	10.4
기능	0	16.1	38.9	29.5	15.5

- 근로조건의 불일치, 숙련인력 부족 및 대기업 선호가 인력확보시의 주요 문제점
  - ‘임금 및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구직자 기대치와 불일치’ (48.5%),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 부족’ (54.9%), ‘취업희망자의 대기업 선호’ (31.4%) 등이 인력 분야를 막론하고 인력 수급의 주된 문제점으로 지적됨
- 1년 이내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6.7%로 이중 상당수가 경영 및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채용을 보류
  - 채용동결의 이유로는 ‘매출 등 경영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서’ (45.1%)와 ‘경기가 크게 개선될 것 같지 않아서’ (28.9%) 가 가장 높게 나타남

### 3. 재무 현황: 올해는 부진하나 내년 매출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

-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 평균 매출액은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2년 평균매출액은 4,298.2백만 원으로 올해는 이보다 13.0% 감소한 3,975.8백만 원으로 예상되며, 내년엔 4,148.1백만 원으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
  - 산업군별로는 조사 대상 메카트로닉스 산업군 업체 평균 매출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올해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전자, 정보기기 산업군의 매출액도 상대적으로 큰 폭인 17% 하락할 것으로 예상



[그림 2] 지식기반제조업 매출액

- 올해 업체의 경영상황 예상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39.2%가 악화될 것이라고 한 반면, 호전될 것으로 보는 예상은 그 절반 수준인 16.8%에 불과
  - 내년인 2014년에 대한 예상은 이보다는 다소 완화되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전체의 28.3%이었으며,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와 비슷한 24.9%
- 지식기반제조업의 업황지수 조사 결과 역시 올해는 업황이 하락하겠으나 내년에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기대
  - 2011년을 100으로 했을 때 2012년에 비해 2013년의 업황지수는 86.2에서 83.3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내년에는 86.4로 작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
  - 2012년은 전자, 정보기기 83.6, 메카트로닉스 82.4, 정밀기기 86.8로 업종별로 편차가 크지 않았으나, 2013년은 메카트로닉스(83.5)와 정밀기기(83.9)가 비슷한 반면 전자, 정보기기는 78.6으로 80 이하로 떨어짐

<표 4> 동종업종 업황지수 예상

(단위 : 2011년 = 100)

	2012	2013	2014
지식기반제조업	86.2	83.3	86.4

- 업체 경영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동종업계의 경기침체 속에서 자체적인 자구책을 강구하는 추세가 두드러짐
  - 경영상황의 악화 요인은 ‘매출 부진’ 이 77.9%로 압도적이었으며, 이에 대응하여 경영상황을 호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경기 활성화’ (31.4%)뿐만 아니라 ‘마케팅활동 강화’ (34.4%)와 ‘신상품(서비스)의 성공’ (19.6%) 등의 자구책이 중요하다고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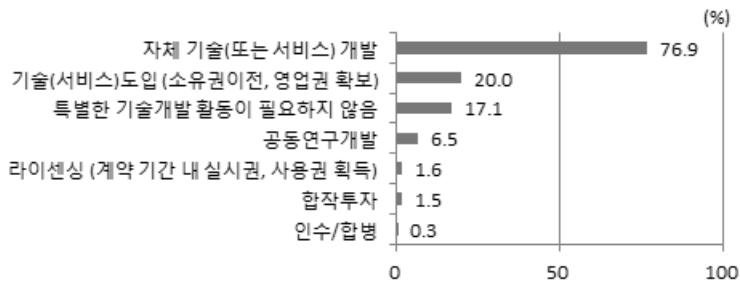
### 3. 서울의 지식기반제조업 업체 정책 수요 실태

#### 1. 창업 여건: 경영상황 악화가 제도적인 문제 못지않게 창업에 악영향

- 창업 여건은 최근 상황을 고려했을 때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기에 여건이 나쁘다는 의견이 47.2%로 여건이 좋다는 의견 6.1%보다 월등히 높음
  - 창업여건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이유로는 매출감소가 48.6%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과당경쟁 20.7%, 시장감소 14.1% 등도 높은 편
  - 산업군별로는 전자정보기기가 4.5%로 가장 낮으며, 메카트로닉스가 6.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서울에 동일 업종을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 있다는 의견은 23.8%에 불과한 반면, 없다는 의견은 35.1%로 높은 편
  - 서울시에 창업하기 좋은 지역이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산업군으로는 전자정보기기(30.6%), 정밀기기(24.2%) 등이 평균 이상의 응답을 기록
- 지식기반제조업의 창업친화지역으로는 서울디지털단지가 입지한 금천구 가산동(33.3%)과 구로구 구로동(26.0%)을 지정한 응답이 절반 이상
  - 강남구 역삼동(6.0%), 강남구 신사동(5.5%)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5% 미만으로 서울디지털단지 일대를 제외하면 창업을 선호하는 지역은 별로 없음
  - 실제 서울디지털단지 일대는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이 밀집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 일대가 지식기반제조업의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반증
  - ‘동종업체, 협력업체와의 접근성’ (35.8%),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접근성’ (33.4%), ‘교통 편리성’ (11.0%) 등이 해당 지역의 추천의 주요 이유
- 기업경영이나 성장, 신규 창업 등에 방해가 되는 정부 정책은 ‘없다’ 는 의견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창업자 연대 보증제도’ (21.9%), ‘창업실패시 신용불량자 전락’ (12.4%), ‘고용의 유연성 부족’ (12.3%) 등이 문제로 지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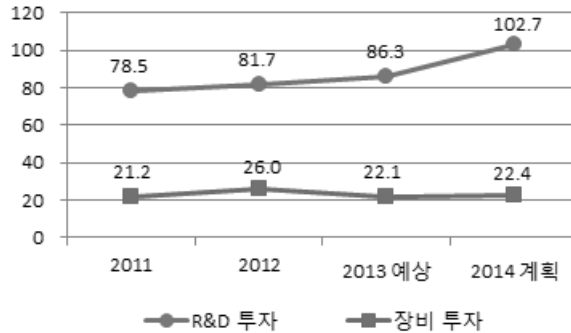
## 2. 혁신역량: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연구개발에 소극적

- 연구조직 여부는 64.6%가 연구조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조직이 있는 기업(35.3%) 중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인가)가 21.5%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전담부서(인가) 7.3%,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비인가) 6.5%임
- 세계 최고 기술/서비스 수준을 100이라 할 때, 상대적인 자체 수준을 평균 69.7 정도로 평가하였으며, 산업군별로도 거의 편차가 없었음
  - 한편 국내 최고 수준에 비해서는 자체 수준을 평균 79.4로 평가
- 최근 3년간 주요 기술개발, 신제품/신상품(서비스) 개발 방식으로는 ‘자체 기술(또는 서비스) 개발’ 이 76.9%로 대다수를 차지
  - ‘기술(서비스)도입 (소유권이전, 영업권 확보)’ (20.0%), ‘특별한 기술개발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 (17.1%)가 그 다음이었으며 ‘공동연구개발’ (6.5%) 등의 활동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자체 기술(또는 서비스) 개발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개발자금부족’ (43.4%)과 ‘개발인력 확보 곤란’ (24.0%)이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부각



[그림 3] 지식기반제조업 주요 기술개발 방식 비중

- R&D 투자 비용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장비투자 비용은 올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내년에는 회복할 전망
  - R&D 투자 비용은 2011년 78.5십만 원에서 2014년 예상 102.7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장비 투자 비용은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며 내년인 2014년에도 올해 예상치 22.1백만 원과 비슷한 수준인 22.4백만 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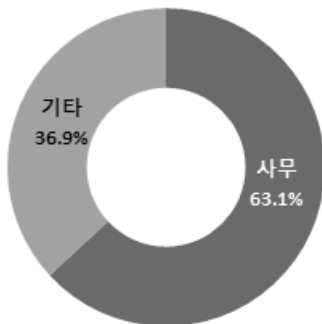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그림 4] 지식기반제조업 R&D 및 장비 투자 예상비용(2011~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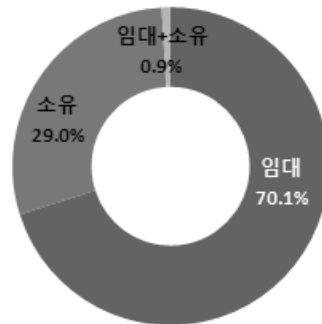
### 3. 입지 관련: 현 입지에 대체로 만족하는 추세로 지식산업센터에 다수 입지

- 지식기반제조업체의 운영에 있어 현 사업장의 입지와 근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사업장의 입지가 업체 운영에 중요하다는 의견은 전체의 58.9%, 시설이나 교통환경 등의 근무환경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67.6%로 절반 이상이 입지의 중요성에 공감
  - 현 사업장 입지에 대한 불만은 절반 가까운 45.6%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높은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18.4%로 그 다음으로 높았으나 예상보다 낮은 수치
- 교통 편리성과 공급처 및 수요처와의 근접성, 좋은 지역 이미지 등이 서울의 현 입지에 자리를 잡은 주요 요인
  - ‘교통 편리성’ (51.9%),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43.7%), ‘동종업체, 협력업체와의 근접성’ (41.3%), ‘좋은 지역 이미지’ (39.4%) 등에서 해당 입지가 우수하다는 응답이 미흡하다는 의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문인력 확보(32.1%), 주변환경의 쾌적성(32.0%), 관련 연구소, 대학 등의 근접성(28.9%)로 우수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던 반면 ‘임대료나 임차비용’에 대한 평가에서 유일하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26.6%로 우수하다는 의견의 23.1%보다 높았음
- 이를 반영하듯 향후 2년 이내 사업장을 이전 계획은 82.8%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이전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 중에서도 대상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한 업체는 33.3%에 불과했으며, 이전 고려 대상지로는 서울디지털단지 일대나 김포시 등을 거론

- 이전 이유로는 ‘저렴한 임대료 혹은 입지비용’ 이 44.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고객 혹은 공급업체와의 근접성’ 도 21.2%로 꼽힘
- 주요 협력업체 업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이 60.3%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화학제품 제조업’ 도 22.4%로 높은 편
- 주요 고객사 업종 역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으로 47.7%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도소매업’ 15.5%, ‘기계장비 제조업’ 15.0% 순
-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사업장은 사무용 임대가 대부분으로 평균 규모는 303.1m<sup>2</sup> (100평 내외) 수준
- 용도별로는 사무용이 63.1%, 기타 용도는 36.9%로서 서울시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생산보다는 사무에 초점을 둔 공간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가여부를 보면 임대가 7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소유는 29.0%, 임대+소유의 형태도 0.9%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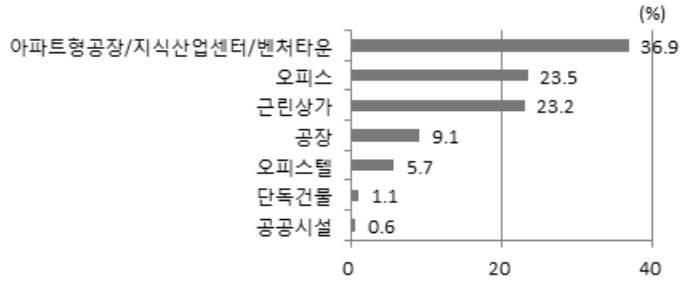
[그림 5]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장 용도



[그림 6]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장 자가여부

- 사업장 유형으로는 지식산업센터/벤처타운이 가장 많은 36.9%의 비중을 차지
- 오피스 23.5%, 근린상가 23.2%의 비중도 높은 반면 공장 9.1%, 오피스텔 5.7%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지식산업센터가 밀집한 서울 디지털단지 일대가 창업친화지역으로 나타난 바와 일맥상통하는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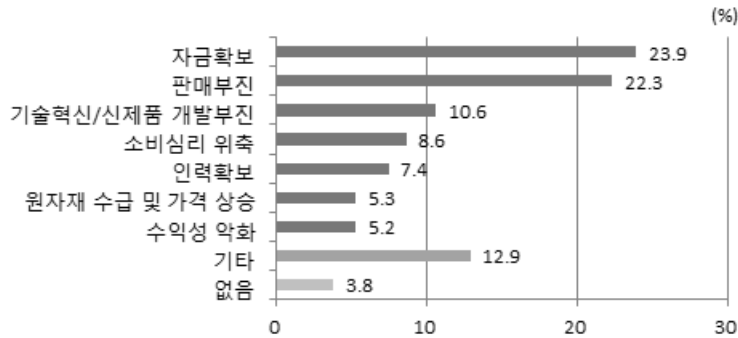




[그림 7] 지식기반제조업 사업장유형 비중

#### 4. 정책 수요: 자금지원 외에 여타 정부정책에 대한 수요 미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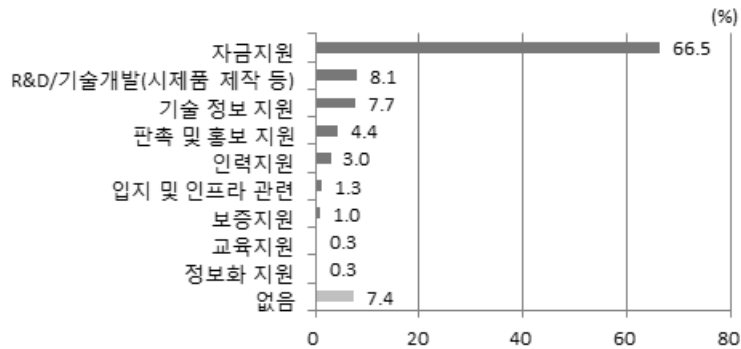
- 지식기반제조업 업체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경영애로사항은 ‘자금확보’ (23.9%)와 ‘판매부진’ (22.3%)
  - ‘기술혁신/신제품 개발부진’ (10.6%), ‘소비심리 위축’ (8.6%), ‘인력확보’ (7.4%)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8] 지식기반제조업 경영애로사항

-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1/5 정도인 21.3%로서 이 중 절반 이상이 자금지원의 형태로 제도를 활용
  - 지원받은 정책지원 형태별로 보자면 ‘자금지원’ 이 54.3%로 가장 많았으며, ‘R&D/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 (30.6%), ‘인력’ (12.4%)이 가장 보편적
  - 지식기반산업에서 보다 강조되는 정책수단인 보증, 판촉 및 홍보, 창업, 기술정보, 기술디자인, 장비, 교육 등의 정책지원은 이에 비하면 다소 미미한 수준

- 평균 지원 금액은 약 2.4억 원이었으며, 메카트로닉스가 가장 높은 약 3.6억 원, 정밀기기가 가장 낮은 약 2.2억 원 평균적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 수요조사에 있어서도 ‘자금지원’ 이 66.5%로 압도적
- ‘R&D/기술개발(시제품 제작 등)’ (8.1%)과 ‘기술정보 지원’ (7.7%)이 그 다음이나 비중이 다소 떨어지며, 지원이 필요 없다는 응답도 7.4%로 낮지 않은 비중



[그림 9] 지식기반제조업 필요한 지원 정책

SEOUL ECONOMIC BULLETIN

# 생생리포트

## ■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1)

오도영 (LSE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과정)

#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 (1)

오도영 · doarch.oh@gmail.com  
LSE 지역 및 도시계획 박사과정

1. 영국 창조산업의 정의
2. 영국 창조산업의 등장배경
3. 창조산업 관련 기구

## 1. 영국 창조산업의 정의

현재 유엔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관에서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창조산업을 통해 창조경제를 육성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있으나, 그 정의는 대체로 각 나라와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관 및 국가들은 산업군 분류를 바탕으로 창조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의 여러 국가 역시 창조산업에 대하여 각각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다양한 분야가 중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창조산업 정의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창조산업 정의	창조산업	문화 및 창조산업	문화산업	문화분야
건축	○	○		○
시청각 (영화, TV, 라디오)	○	○	○	○
공연예술	○	○	○	○
도서관			○	○
디자인	○	○		
미술시장/ 시각예술	○	○	○	○
출판	○	○	○	○
패션	○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	○		
박물관/ 문화유산			○	○
음악	○	○	○	○
공예	○			
광고	○	○		

출처: British Council, <Mapping the Creative Industries: A Toolkit>, 2010, p. 39

한편 이러한 정의는 현재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와는 개념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에서의 창조경제는 특정 산업군을 기준으로 정의되어 있는 창조산업을 통해 발생하는 경제 성장으로 이해되고 있는 반면, 현 정부의 창조경제는 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창조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sup>1)</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 영국에서 창조산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논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창조경제와의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오래 전 부터 고용구조와 산업군 위주의 창조산업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어왔으며, 영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현재 창조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구상 중에 있다. 2013년 4월 문화미디어스포츠부가 발표한 보고서<sup>2)</sup>에 의하면 현재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창의성을 기반으로 일하고 있는 직군을 창조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창조산업 분야 중에서도 단순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종은 제외하는 새로운 창조산업 정의를 구상 중에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창조적 행위”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과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 2. 영국 창조산업의 등장 배경

영국의 창조경제는 1997년 노동당 정권이 보수당을 이기고 집권을 시작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총리로 임명된 토니 블레어는 창조산업 태스크포스(CITF)와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를 설립하고 창조산업을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중요 사업으로 지정하여 창조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하였다. 이후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창조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한 두개의 보고서를 1998년과 2001년에 걸쳐 연달아 발간하였는데, 이는 창조산업이 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안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1998년 11월에 발표된 첫 번째 보고서<sup>3)</sup>에 따르면 1998년 당시 창조산업은 600억 파운드(약 100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영국 전체 경제소득의 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40만 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보고서는 창조산업을

1) 이에 대해서는 <서울경제> 98호 (2013년 5월)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을 참고해 보기 바란다.

2) DCMS, <Classifying and Measuring the Creative Industries>, 2013

3) DCMS,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1998

‘개개인의 창의성 및 기술과 재능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지적재산의 생산과 이용을 통해 부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13개의 산업 분야를 창조산업 관련군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르면 창조산업 분야에는 광고, 건축, 미술 및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오락용 소프트웨어(게임), 음악, 공연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서비스, TV 및 라디오가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창조산업의 정의 및 분류는 이후 다른 나라들이 창조산업을 정의하고 육성시키는 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2001년 4월 두 번째로 발행된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 창조산업 분석 보고서<sup>4)</sup>는 2년 동안 실시되었던 창조산업 지원 정책의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보고서는 영국의 창조산업이 부가적인 산업이 아닌 주요 산업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고 언급하면서 교육, 지역정책, 기업정책, 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네 단계에 걸친 주요 변화로는, 첫째, 창조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된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을 정부차원에서 단일화 하여 성공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창조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기업들이 창조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의 동반 관계 형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음악산업협회(MIF), 창조산업 수출증진 자문단(CIEPAG) 등을 대표적인 단체로 언급하였다.

셋째, 광역 경제 차원에서는 지역발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와 지역문화협력단(Regional Cultural Consortium) 등이 지역의 각종 단체들과 연합하여 광역 경제 차원에서 창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창조산업이 지역경제발전, 도심재생, 사회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웨필드 시의 창조산업구역, 버밍엄 시의 보석산업구역, 뉴캐슬 시의 그레이저 타운 등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하였다.

1997년 이후 영국의 창조산업은 다양한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영국 경제발전엔 지속적인 기여를 하였다. 2009년 기준으로 창조산업이 영국 총 부가가치의 2.9%를 차지하였으며, 영국 전체 수출에 10.6 퍼센트를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5)</sup>.

4) DCMS, <Creative Industries Mapping Document>, 2001

5)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2011

또한 2010년을 기준으로 150만 명이 창조산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10만여 개의 창조산업 관련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영국 전체 고용 인구 중 약 5 퍼센트 및 영국 전체 기업 중 약 5 퍼센트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표 2〉 영국의 창조산업 수출 현황, 2009

분야	수출액 (단위:백만파운드)	창조산업 내 수출비중(%)	전체 산업내 수출비중(%)
광고	1,477	16.6%	1.8%
건축	324	3.6%	0.4%
미술 및 골동품	-	-	-
공예	-	-	-
디자인	104	1.2%	0.1%
디자이너 패션	7	0.1%	0.01%
영화, 비디오, 사진	1,627	18.2%	1.9%
음악, 시각, 공연예술	286	3.2%	0.3%
출판	2,631	29.5%	3.1%
소프트웨어/전자출판	215	2.4%	0.3%
디지털 및 오락 미디어	78	0.9%	0.1%
TV 및 라디오	2,175	24.4%	2.6%
창조산업 전체 수출	8,923	100%	10.6%
산업 전체 수출	84,120	-	-

주: 공예산업은 본 조사에서 측정되지 못하였음

출처: DCMS, <Creative Industries Economic Estimates>, 2011, p. 16

### 3. 창조산업 관련 기구

영국에서 창조산업은 문화미디어체육부의 주도 아래에 다양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현재 창조산업의 주축을 담당하는 기관들은 창조산업 협의회 (Creative Industry Council)을 포함하여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창조 및 문화기술 협회(Creative and Cultural Skills) 등이 있다.



### 1) 창조산업협의회(Creative Industry Council)

창조산업협의회는 2010년 5월 보수당 집권 이후 정부 주도로 조직되어 2011년 7월 첫 회의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는 영국 창조산업의 중심 기관이다. 창조산업협의회는 창조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창조산업의 발전을 위한 단일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금융, 기술, 수출시장, 규제, 지적재산권보호, 인프라 등 창조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진단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현재 문화미디어체육부 장관 마리아 밀러(Maria Miller), 기업혁신기술부 장관 빈스 케이블(Vince Cable), 페이스북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담당 부사장 니콜라 멘델손(Nicola Mendelsohn)을 공동 의장으로 하여 여러 정부 및 공공 기관 관계자들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다양한 영국 내 창조산업 관련 기업 임원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와 기업 간의 원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NESTA)

국립과학기술예술재단(이하 네스타)은 1998년 정부 산하의 독립기구로 출범하여 창조산업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위하여 다양한 산업 분야의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을 연구함과 더불어,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는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창조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함께 다양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하고 창조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해 관련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창조산업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현재는 창조산업 지원을 위하여 현재 창조기업 멘토 네트워크(Creative Business Mentor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창조산업 종사자들에게 1:1 멘토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창조산업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의 사전 연구를 수행하는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창조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네스타는 복권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2012년 정부로부터 분리되어 자선단체로 전환되었다.

### 3) 창조 및 문화기술 협회 (Creative and Cultural Skills)

창조 및 문화기술 협회는 창조산업 분야의 숙련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04년 설립된 기관으로, 공예, 문화유산, 디자인, 문학, 음악,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의 인력을 양성

하고 관련 자격 제도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영국의 창조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는 여러 기술교육기관과 연합하여 창조 및 문화기술 교육 네트워크를 조직하였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관련 기술을 교육 받고 창조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창조산업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 수준을 넘어 각 지역별로 창조산업의 분야별 인력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 네스타와 더불어 영국의 창조경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1) 리포트에서는 영국의 창조산업 개념의 등장 배경과 창조산업의 발전에 기여를 한 관련 기관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달에 이어질 ‘영국의 창조산업 현황(2)’ 리포트에서는 영국의 창조산업 관련 정책이 시기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알아보고, 관련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SEOUL ECONOMIC BULLETIN

# 인포그래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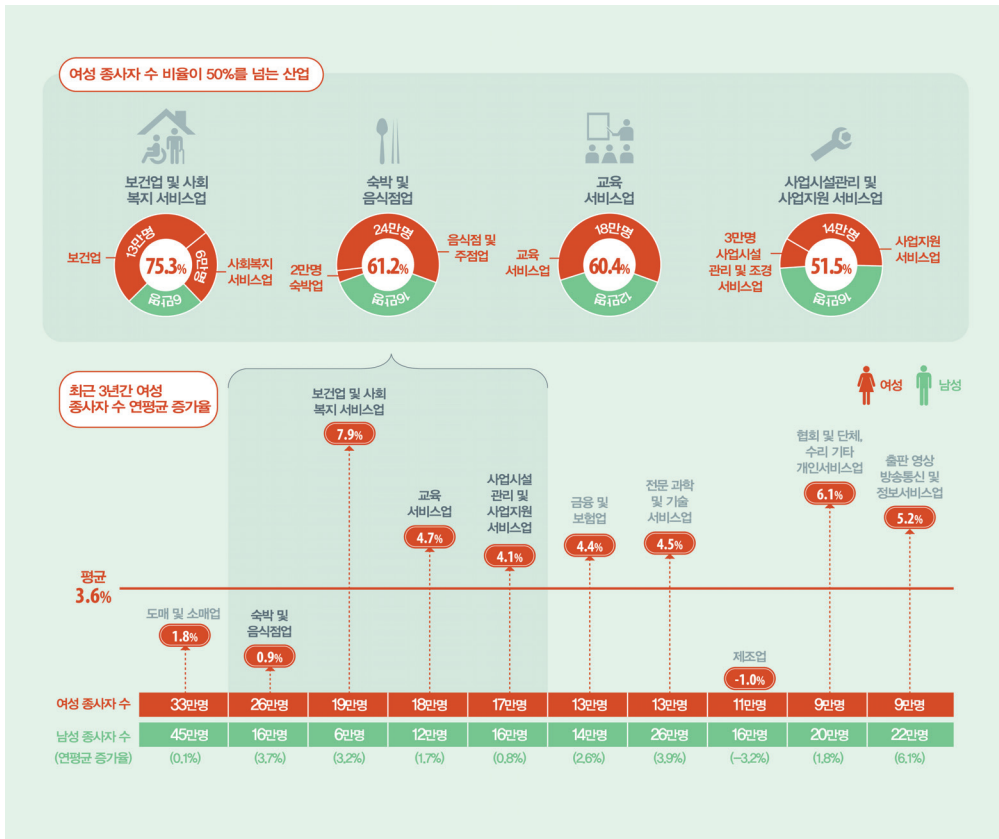
인포그래픽스

## ■ 서울에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박희석 센터장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장윤선 연구원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서울에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박희석 센터장 hspark@si.re.kr  
장윤선 연구원 changys@si.re.kr



## 서울에서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5.3%, ‘숙박 및 음식점업’ 61.2%, ‘교육 서비스업’ 60.4%,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1.5% 등 4개 산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과 연평균 증가율 모두 1순위.

- 여성 종사자 수가 남성보다 많은 산업은 총 4개. 그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5.3%로 압도적. 연평균 증가율도 7.9%로 가장 빠르게 증가.
  - 4개의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여성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2~5순위 산업과 일치.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여성 종사자 수가 75.3%를 차지하고 그 중 13만명은 보건업, 6만명은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종사.
  
- 여성 종사자 수의 비중이 50%가 넘는 4개 산업 중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산업들은 평균 증가율을 상회.
  - 전체 여성 종사자 수의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남성 종사자 수의 평균 3.1%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여성 종사자 수가 가장 많지만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음.
  - 3순위로 종사자 수가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은 연평균 증가율이 7.9%로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

<표 1> 2011년 서울 산업별 남성과 여성 종사자 수

(단위 : 명)

	2011			
	총 종사자 수	남성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비율
전산업	4,498,312	2,619,082	1,879,230	41.8%
도매 및 소매업	786,971	452,917	334,054	42.4%
숙박 및 음식점업	417,162	161,743	255,419	61.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9,466	61,641	187,825	75.3%
교육 서비스업	299,858	118,642	181,216	6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4,573	157,507	167,066	51.5%
금융 및 보험업	267,602	136,991	130,611	48.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89,581	264,321	125,260	32.2%
제조업	274,809	161,189	113,620	41.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94,332	100,390	93,942	48.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302,726	215,285	87,441	28.9%

주) 2011년 여성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10대 산업만 표시

〈표 2〉 2011년 서울 여성 종사자 비율이 50% 넘는 산업의 세부분류

(단위 : 명)

	총 종사자 수	남성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비율
숙박 및 음식점업	417,162	161,743	255,419	61.2%
숙박업	35,199	19,626	15,573	3.7%
음식점 및 주점업	381,963	142,117	239,846	5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49,466	61,641	187,825	75.3%
보건업	179,902	51,237	128,665	51.6%
사회복지 서비스업	69,564	10,404	59,160	23.7%
교육 서비스업	299,858	118,642	181,216	60.4%
교육 서비스업	299,858	118,642	181,216	60.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24,573	157,507	167,066	51.5%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69,288	38,336	30,952	9.5%
사업지원 서비스업	255,285	119,171	136,114	41.9%

<표 3> 2008년 2011년 서울 여성 종사자 수와 연평균 증감율

(단위 : 명)

	2008		2011		연평균 증감율	
	총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총 종사자 수	여성 종사자 수
전산업	4,079,277	1,691,631	4,498,312	1,879,230	3.3%	3.6%
도매 및 소매업	768,012	316,714	786,971	334,054	0.8%	1.8%
숙박 및 음식점업	393,802	248,642	417,162	255,419	1.9%	0.9%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5,599	149,576	249,466	187,825	6.7%	7.9%
교육 서비스업	270,794	157,984	299,858	181,216	3.5%	4.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2,163	148,197	324,573	167,066	2.4%	4.1%
금융 및 보험업	241,494	114,759	267,602	130,611	3.5%	4.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45,314	109,884	389,581	125,260	4.1%	4.5%
제조업	294,649	117,207	274,809	113,620	-2.3%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3,878	78,648	194,332	93,942	3.8%	6.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55,087	75,063	302,726	87,441	5.9%	5.2%

주) 2011년 여성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10대 산업만 표시

주: 그림은 종사자 수는 만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였으며 여성 종사자 수가 많은 상위 10대 산업만 표시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농업·임업 및 어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국제 및 외국기관, 광업 제외)

자료 : 2008, 2011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 경제동향

- **요 약**
- **생 산** 제조업지수/재고지수
- **소 비** 대형소매점 판매액
- **고 용**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률·고용률
- **물 가** 소비자물가/ 신선식품  
곽지원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부 동 산** 주택매매가격/주택전세가격
- **금 용** 가계대출/개인파산/신용보증재단
- **수 출 입** 수출입액/수출입 품목/국가별 품목  
이소은 연구원(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

## | 요약 | 9월 서울의 경제동향

생  
산

-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는 99.1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9월 제조업 출하·재고 지수는 각각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4.1% 증가하여 경기하강기

소  
비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4,496억원으로 전국(6조7,152억원)의 36.5%를 차지
- 9월 백화점,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2.2%, 4.7% 각각 증가

고  
용

- 서울의 9월 취업자 수는 513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2천명(1.6%)이 증가
- 서울의 9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물  
가

- 2013년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부  
동  
산

-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은 강북지역(-0.04%) 특히 은평구(-0.32%)와 용산구(-0.25%)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0.01% 하락
-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 역시 강남지역(1.11%) 특히 도봉구(1.95%)와 구로구(1.62%)를 중심으로 전월대비 1.06% 상승

금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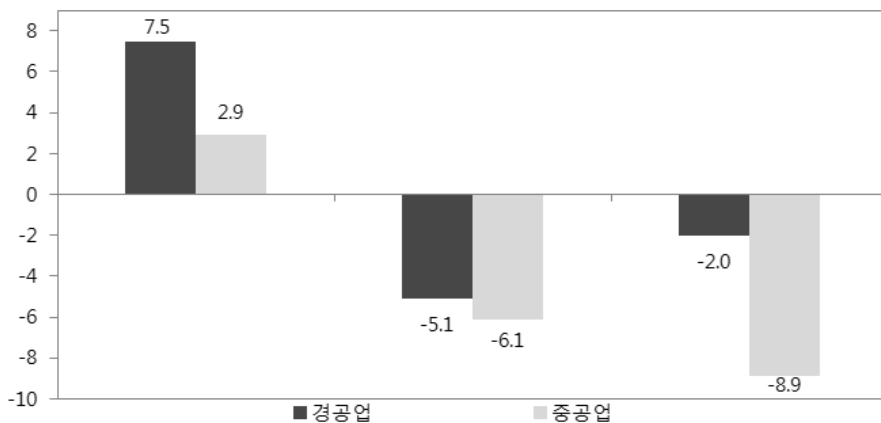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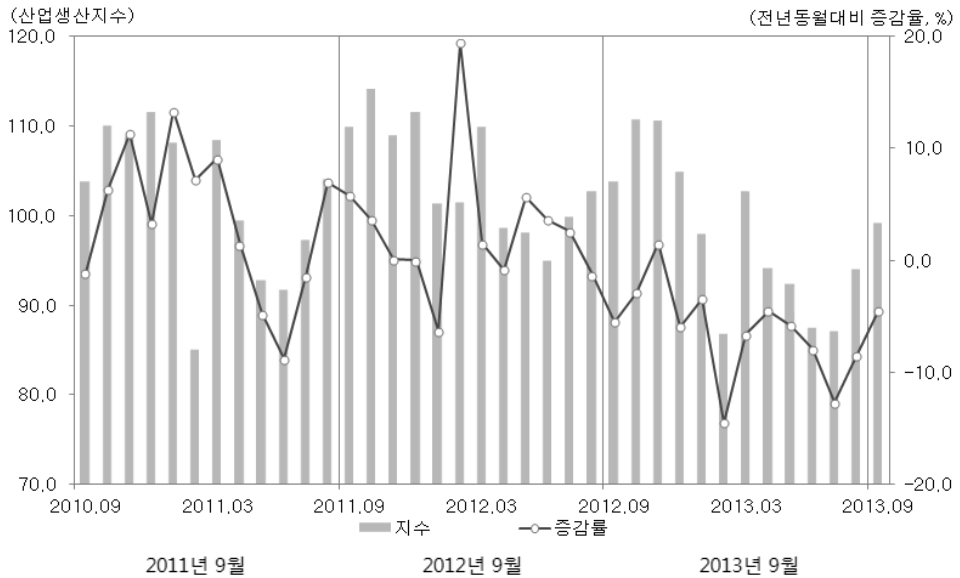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전체 대출금 잔액은 570조 9,783억 원으로 전월대비 0.18% 증가, 그 중 가계대출은 176조 9,079억 원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 서울의 9월 신설법인수는 1,737개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15.9% 감소
- 서울의 9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보험 수준

수  
출  
입

- 서울의 9월 수출은 48.2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6.6% 감소, 품목별로는 자동차부품, 국가별로는 중국이 1순위 차지
- 서울의 9월 수입은 106.7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품목별로는 석유제품, 국가별로는 역시 중국이 1순위 차지

## | 생 · 산 |

- 서울의 9월 제조업생산지수 99.1(2010=100)로 전년동월대비 4.5% 감소
  - 경공업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0% 감소, 중공업부문은 8.9% 감소
  - 제조업 부문별로 전년동월대비 가죽 및 신발(56.2%), 종이제품(54.1%), 섬유제품(29.0%) 등 증가, 인쇄 및 기록매체(-20.0%),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18.8%), 의복 및 모피(-5.2%) 등 각각 감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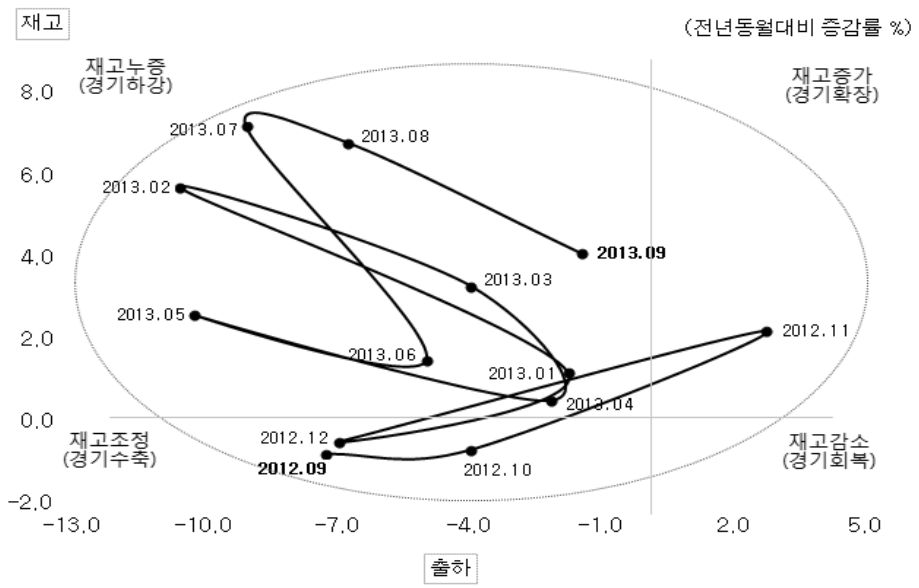
〈그림〉 산업생산 추이 및 증감률

## | 출하 · 재고 순환 |

- 서울의 9월 제조업 전년동월대비 출하 감소, 재고 증가로 경기하강기
  - 서울의 9월 출하지수는 102.9(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1.5% 감소
  - 서울의 9월 재고지수는 111.3(2010=100.0)로 전년동월대비 4.1% 증가
  - 출하 감소, 재고 증가하여 경기하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참고>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경기수축기	경기회복기	경기확장기	경기하강기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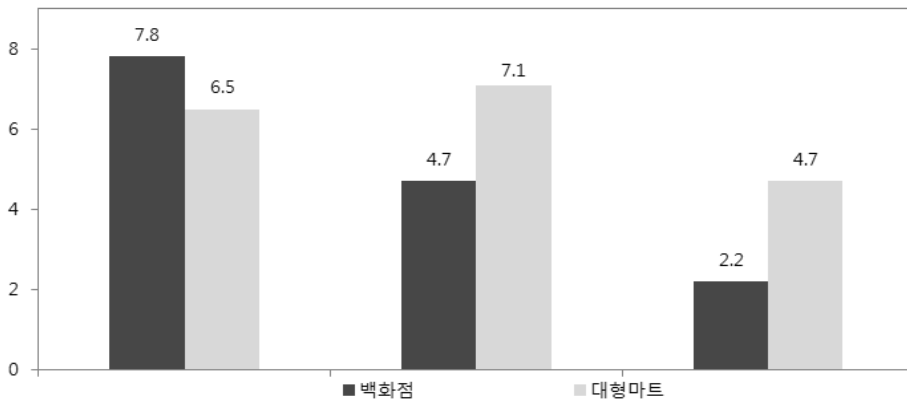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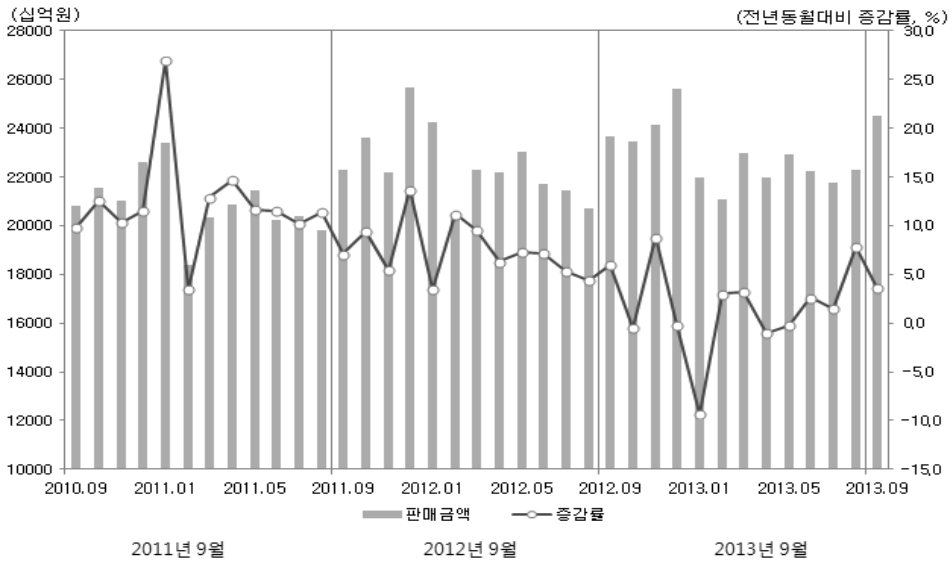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 | 소 · 비 |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2조4,496억원으로 전국(6조7,152억원)의 36.5%를 차지
  - 백화점 판매액은 1조1,296억원으로 전국(2조4,684억원)의 45.8%, 대형마트 판매액은 1조3,200억원으로 전국(4조2,468억원)의 31.1%를 차지
  - 서울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4.5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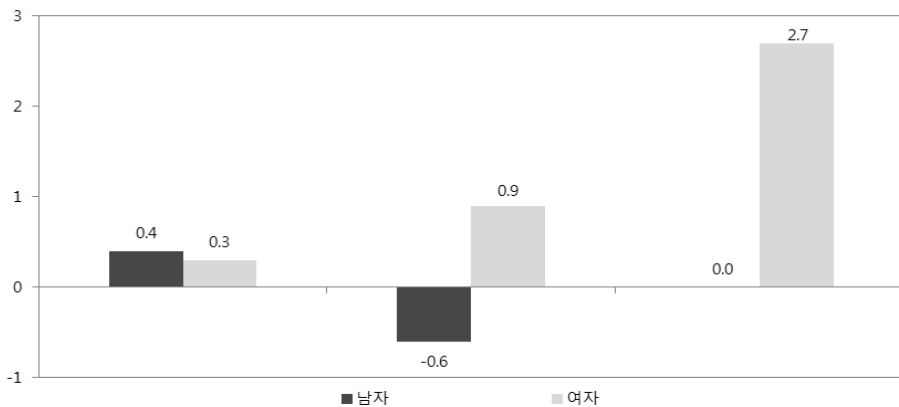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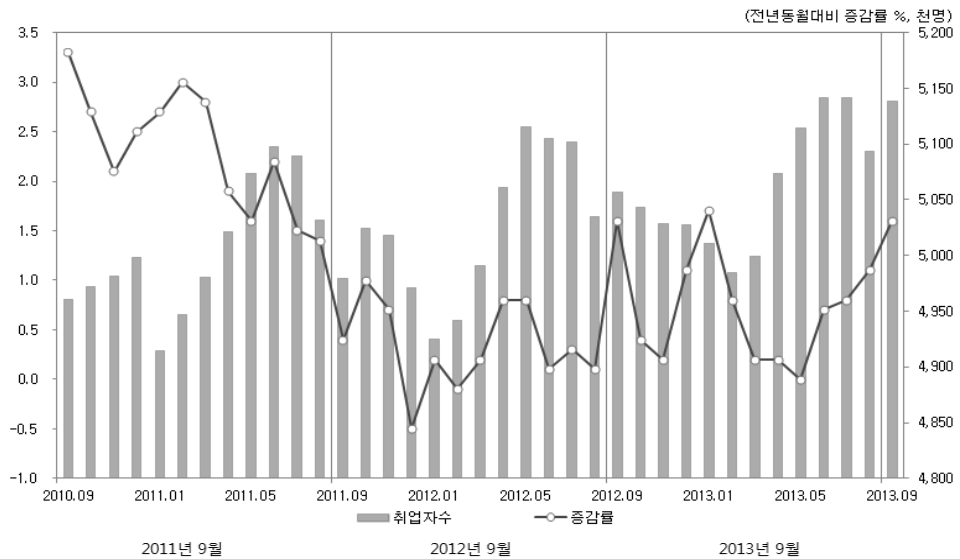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및 증감률

## | 취·업·자 |

## ■ 서울의 9월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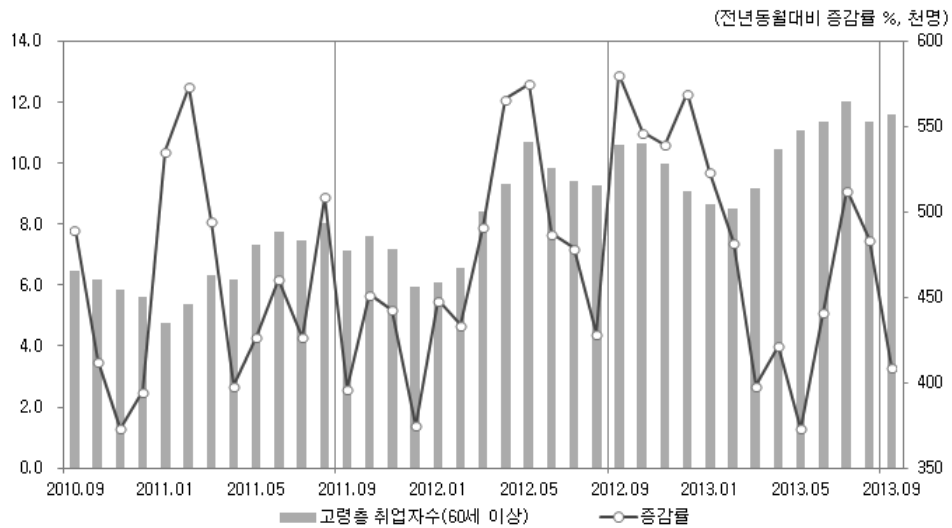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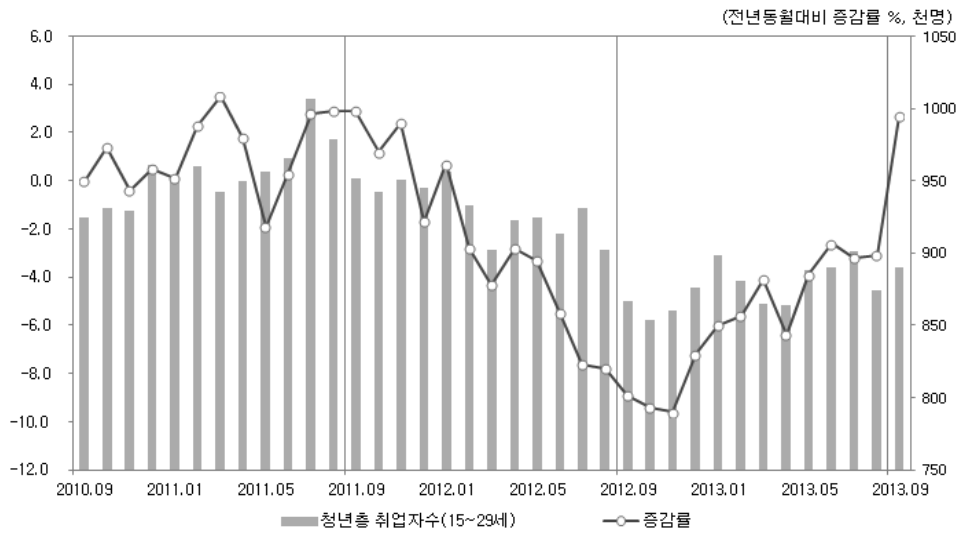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취업자는 513만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2천명(1.6%)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7만5천명, 여자는 226만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만명(1.1%), 여자는 5만2천명(2.3%) 각각 증가
- 산업별로 보면,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5만7천명(6.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3만8천명(2.8%),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이 2만1천명(1.6%) 각각 증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취업자 추이 및 증감률

- 서울의 9월 청년층(15세~29세) 2년 만에 상승,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 여전히 증가
  - 서울의 9월 청년층(15세~29세) 취업자는 8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하며 플러스 성장세 회복
  - 서울의 9월 고령층(60세 이상) 취업자는 55만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로 꾸준한 플러스 성장
  - 2013년 9월 청년층 취업자 수는 2년 만에 상승세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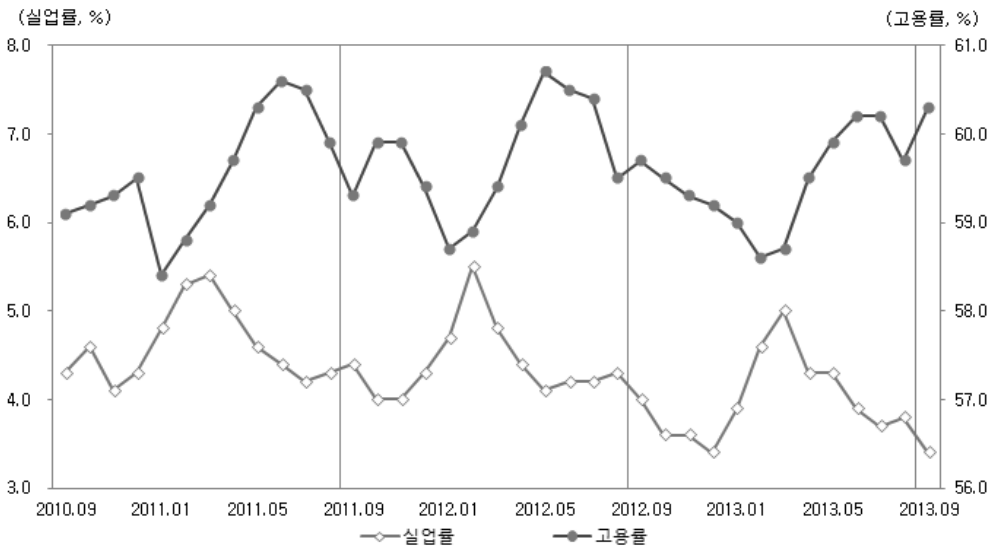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의 월별 청년층 및 고령층 취업자 추이

## | 고 · 용 · 률 · 및 · 실 · 업 · 률 |

- 서울의 9월 고용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국대비 낮은 수준
  - 서울의 9월 고용률은 60.3%로 전년동월대비 0.6%p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70.3%로 전년동월대비 0.5%p, 여자는 51.1%로 0.7%p 각각 증가
  - 2013년 9월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60.4%)에 비해 0.1%p 낮은 수준
  
- 서울의 9월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감소, 전국대비 높은 수준
  - 서울의 9월 실업자는 18만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명(-14.1%)이 감소
  - 실업률은 3.4%로 전년동월대비 0.6%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7%, 여자는 3.0%로 전년동월대비 0.7%p, 0.6%p 각각 감소
  - 2013년 9월 서울시 실업률은 전국(2.7%)에 비하여 0.7%p 높은 수준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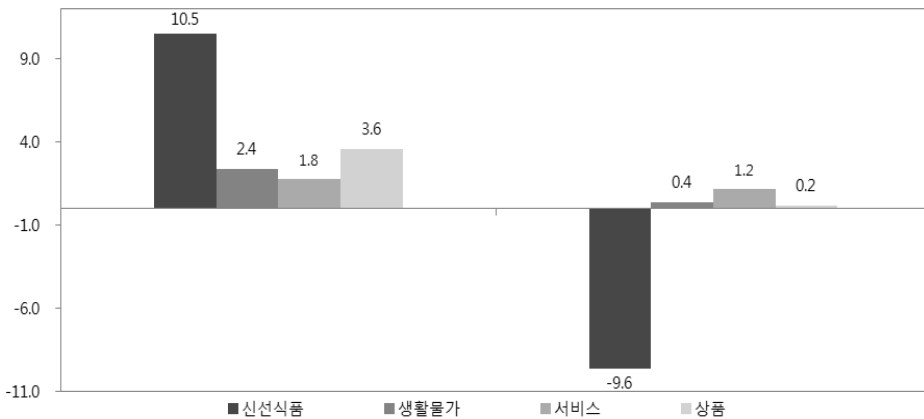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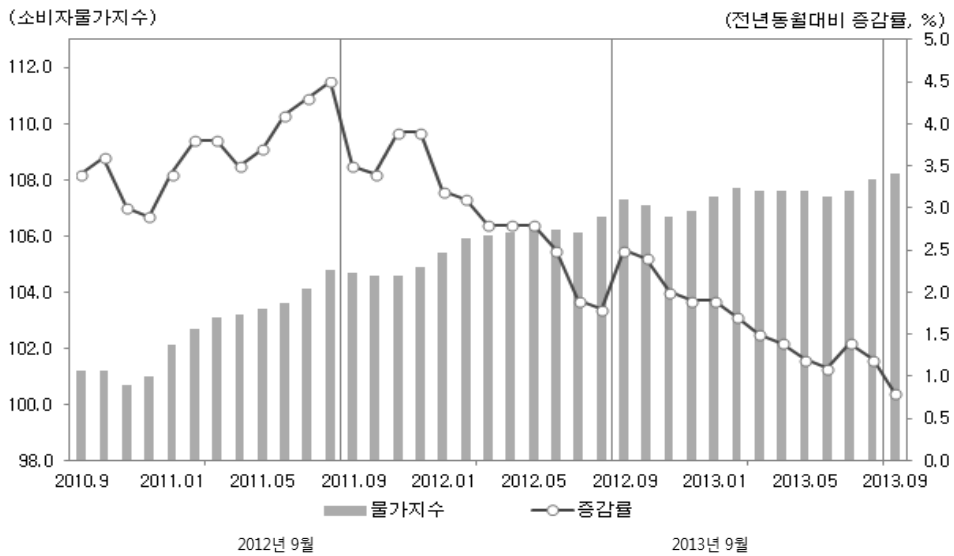
<그림> 서울 실업률, 고용률 추이



## | 물 · 가 |

### ■ 서울의 9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2013년 9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8.2(2010년=100.0)으로 전년동월대비 0.8% 상승
- 전년동월대비 주요 등락 부문을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2.1%), 교통(-1.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0.6%), 교육(-0.6%), 통신(-0.1%)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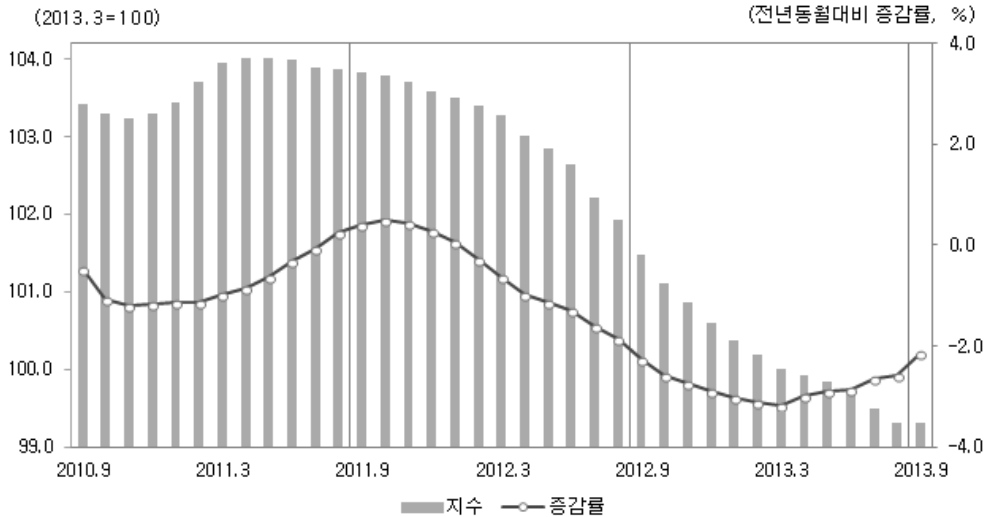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2010=100)

<그림> 서울의 소비자물가 추이 및 동향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 서울의 9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1% 하락
  - 강북지역(-0.04%) 전월대비 하락, 강남지역(0.02%) 전월대비 상승
    - 하락률 상위지역: 은평구(-0.32%), 용산구(-0.25%), 영등포구(-0.18%), 양천구(-0.11%)
  - 아파트(-0.05%) 전월대비 하락, 연립주택(0.04%)과 단독주택(0.06%)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9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5% 상승
  - 광역시(0.24%)과 기타지방(0.13%) 전월대비 상승, 수도권(-0.06%)은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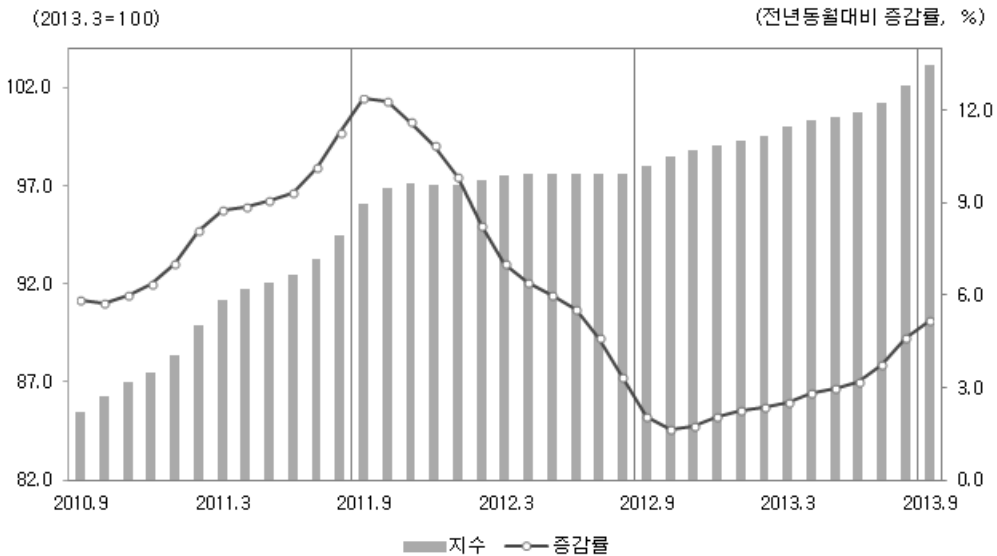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매매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증가, 매매거래건수 전월대비 증가
  - 평당 매매가격(1,629만원)은 전월(1,628만원)대비 0.1% 증가
  - 매매거래건수(4,205건)는 전월(2,789건) 대비 50.8% 증가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서울의 9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1.06% 상승
  - 강남지역(1.11%), 강북지역(1.01%) 등 전 지역에서 전월대비 상승
    - 상승률 상위지역: 도봉구(1.95%), 구로구(1.62%), 성북구(1.48%), 송파구(1.36%)
  - 아파트(1.42%), 연립주택(0.68%), 단독주택(0.39%) 등 상승세 지속
  
- 전국의 9월 주택전세가격 전월대비 0.81% 상승
  - 수도권(1.22%), 기타지방(0.32%), 광역시(0.29%) 모두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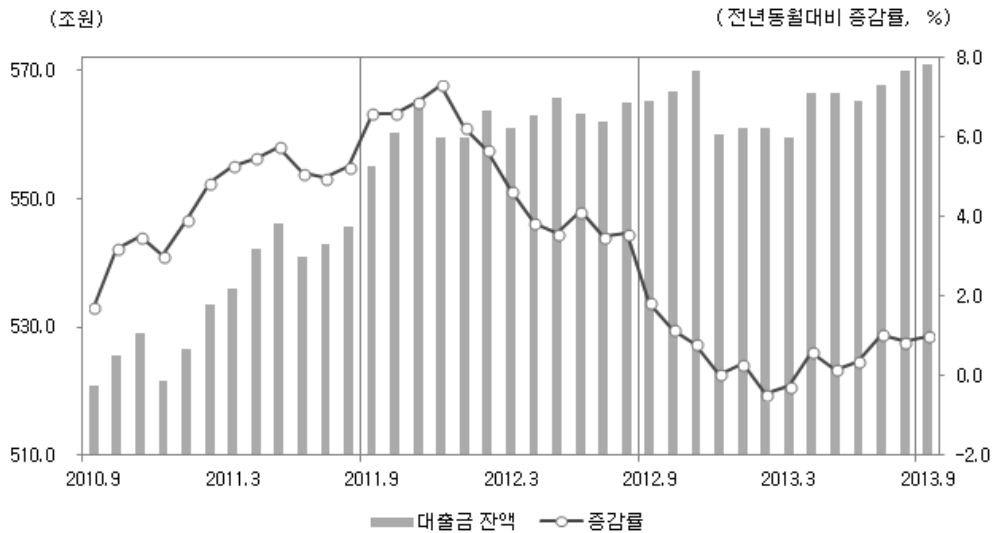
자료 : 국민은행연구소

〈그림〉 서울 주택 전세가격 종합지수 및 증감률 추이

- 서울의 9월 아파트 평당 전세가격 전월대비 증가, 전세거래건수 전월대비 감소
  - 평당 전세가격(평균 930만원)은 전월(914만원)대비 1.7% 증가
  - 전세거래건수(6,753)는 전월(8,322건) 대비 18.9% 감소

## | 가 · 계 · 대 · 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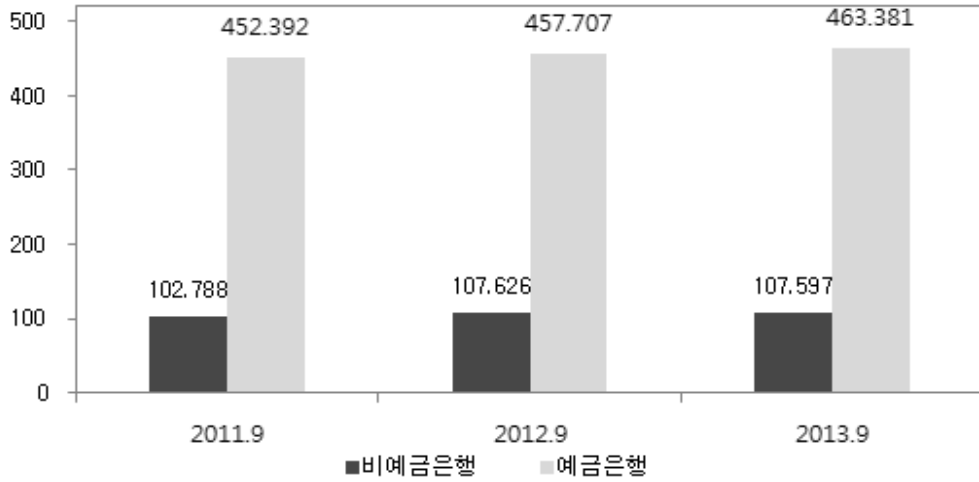
- 9월 기준 서울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570조 9,783억원)은 전월(569조 9,242억원)대비 0.18% 증가
  - 그 중 예금은행(463조 3,814억원)과 비예금은행(107조 5,969억원)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1.2%, 0.03% 감소
  
- 9월 기준 전국지역의 전체 대출금 잔액은 전월대비 증가
  - 전체 대출금 잔액(1,492조 870억원)은 전월(1,483조 7,840억원)대비 0.56% 증가



주 : 말잔 금액, 대출금은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 및 증감률 추이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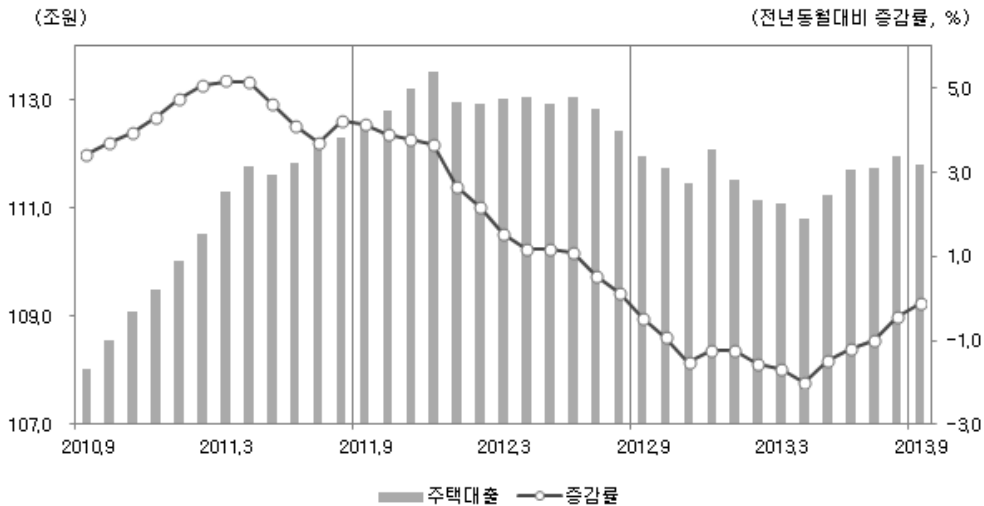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의 대출금 잔액

■ 9월 중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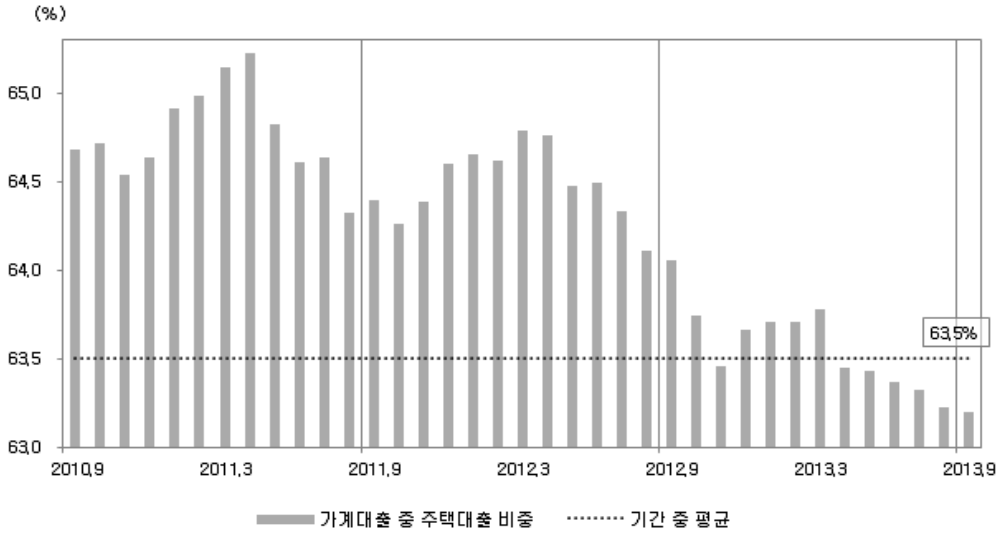
- 은행 가계대출(176조 9,079억원)은 전월(177조 670억원)대비 0.1% 감소
- 그 중 주택대출(111조 8,125억원)은 전년동월대비 0.1% 감소



주 : 말잔 금액, 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주택관련 집단대출 중 주택담보이외의 대출의 총합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주택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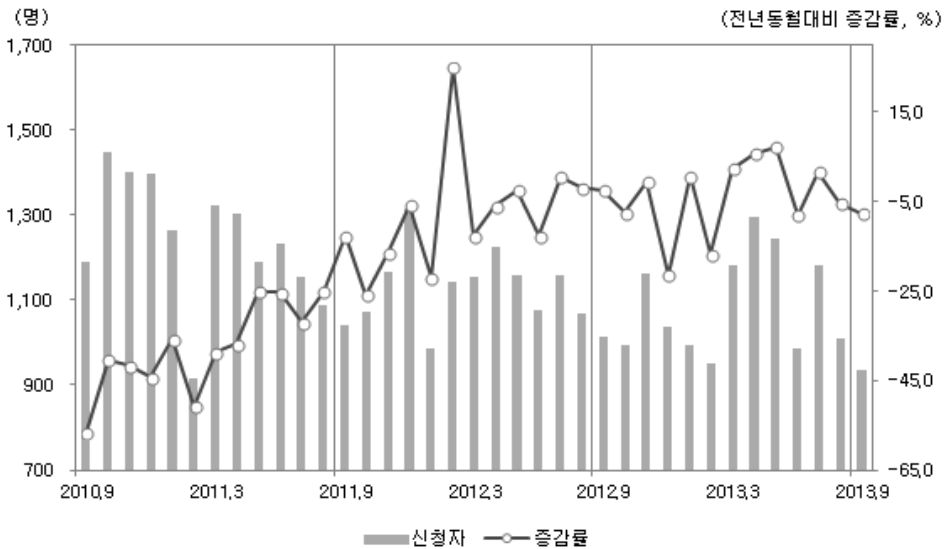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은행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 추이

■ 9월 중 개인파산 신청자는 전월대비 감소

- 개인파산 신청자(937명)은 전월대비 7.0% 감소, 전년동월대비 7.7% 감소
- 개인파산 선고전 기각률(1.1%)은 전년동월대비 42.9%p 감소, 면책 기각률(1.7%)은 전년동월대비 67.9%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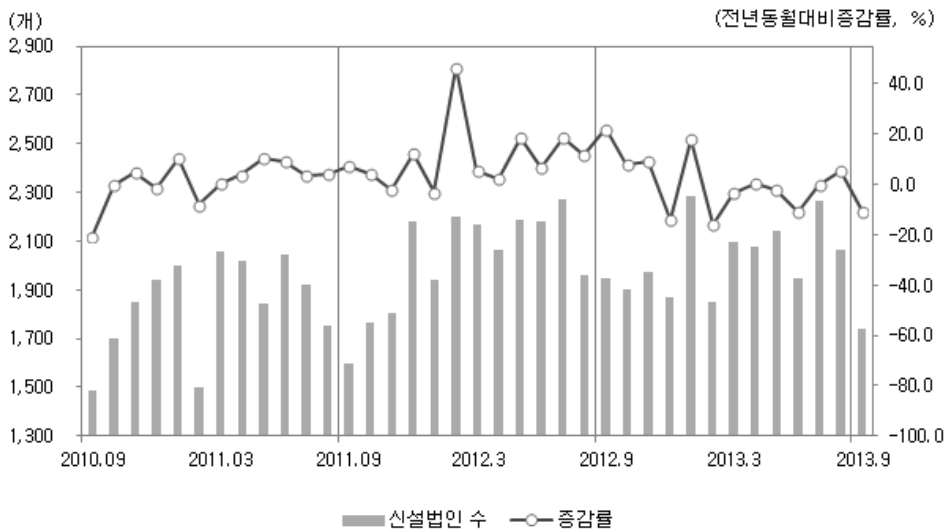


자료 : 대법원

<그림> 서울시 개인파산 신청자 추이

## | 신 · 설 · 및 · 부 · 도 · 법 · 인 |

- 서울의 9월 신설법인 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737개로 전월대비 15.9%(328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10.9%(212개) 감소
  - 업종별로는 건설 및 설비업이 전월대비 31.0%(39개) 감소하였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각각 3.3%(8개), 16.5%(277개) 감소
  
- 서울의 9월 부도업체 수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30개로 전월대비 9.1%(3개) 감소, 전년동월대비 31.8%(14개) 감소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전월대비 각각 25.0%(5개), 22.2%(2개) 감소, 건설 및 설비업은 전월대비 133.3%(4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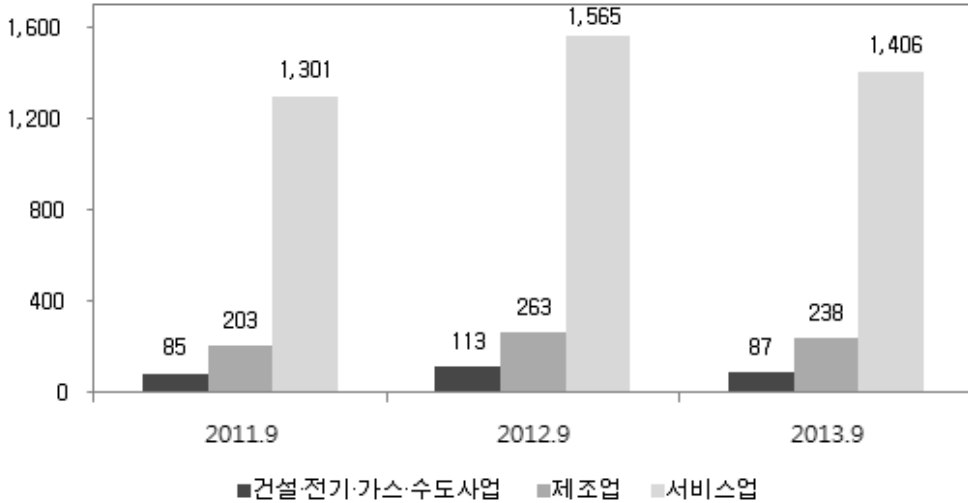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신설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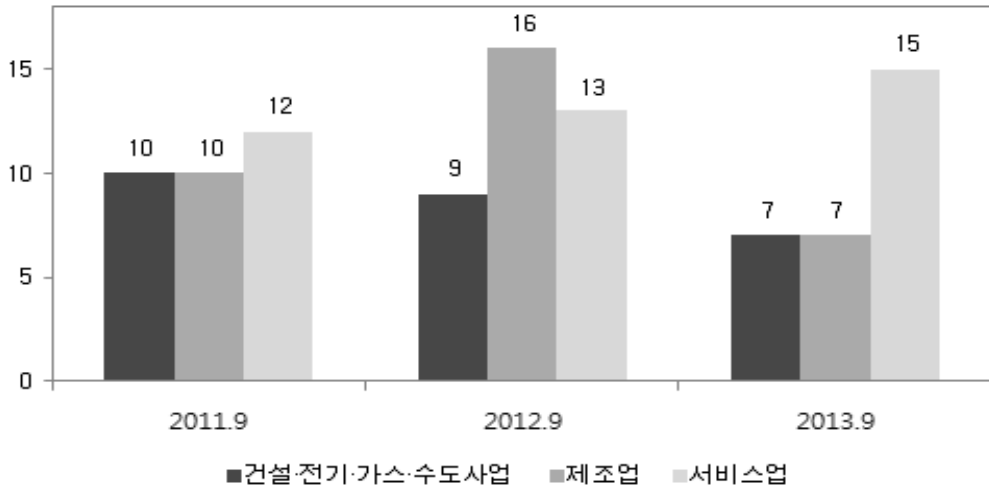
<그림> 서울시 부도법인 추이



자료 :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시 산업별 신설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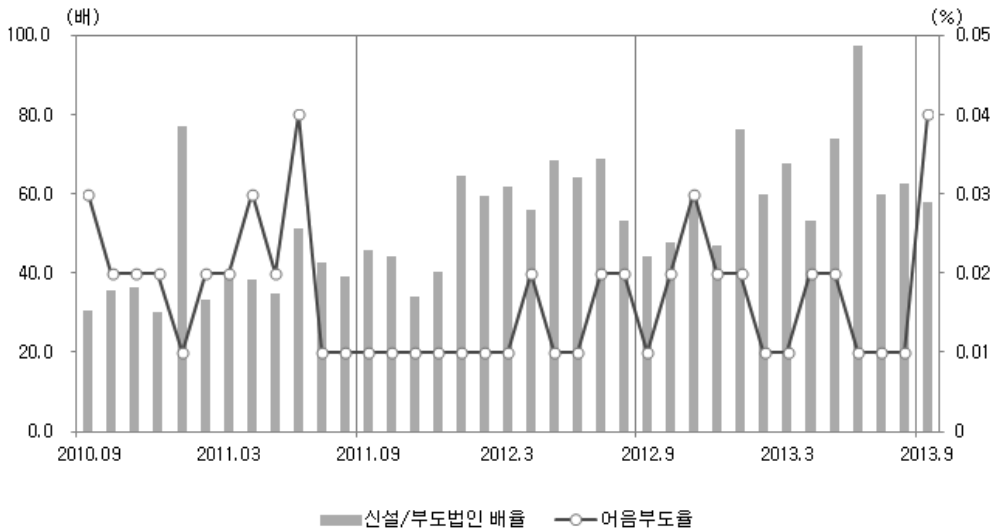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산업별 부도법인 현황

- 9월 중 서울의 부도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수의 배율 전월대비 감소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4% 이고 서울의 신설법인/부도법인 배율은 57.9배로 전월 (62.6배)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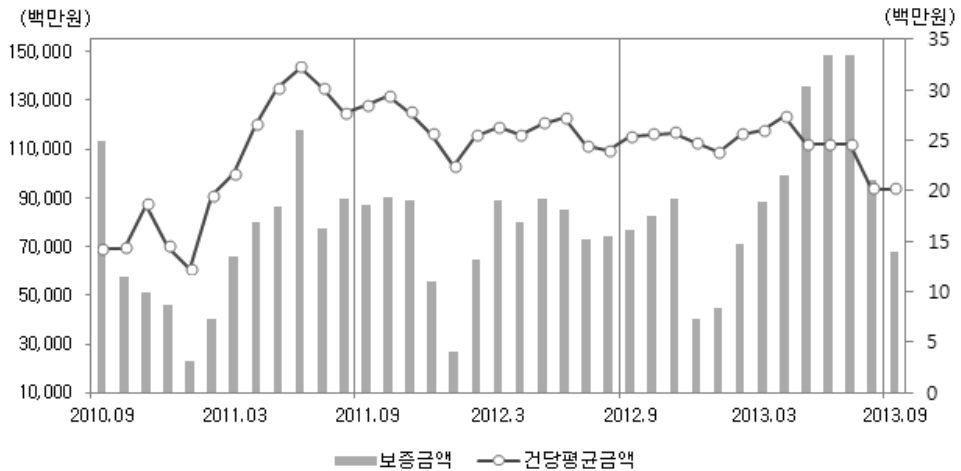


자료 :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그림> 서울시 어음부도율 및 신설/부도법인 배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 서울의 9월 보증지원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대비 보합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월중 67,850백만원, 3,357건
    - 보증금액과 보증건수는 전월대비 각각 30.2%, 30.3% 감소,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전월 대비 보합수준
  - 전년동월대비 보증금액과 건당 평균지원금액은 각각 11.7%, 20.4% 감소하였고, 보증 지원 건수는 10.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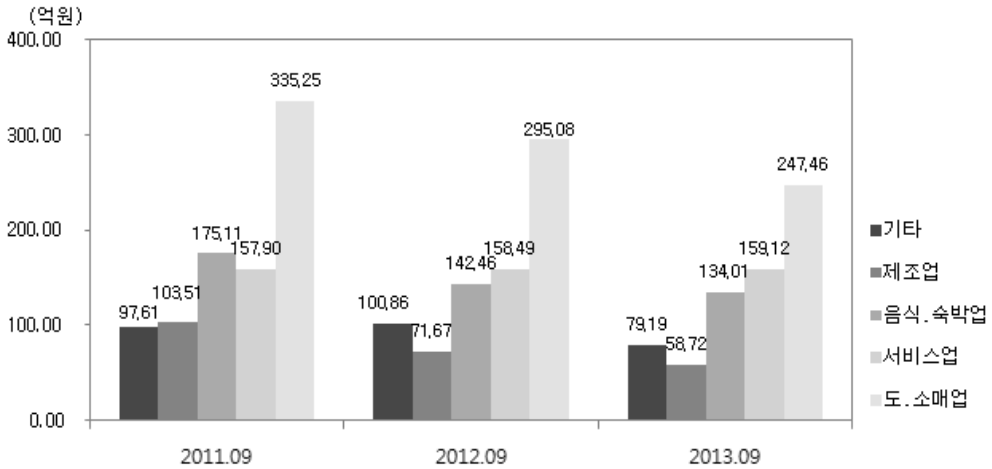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건당 평균 금액 추이

- 서울의 9월 제조업종 보증지원 비중 전월대비 감소
  - 9월 중 제조업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이 공급금액기준 8.7%로 전월(8.3%) 대비 0.4%p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종에 대한 지원 비중은 36.5%로 전월(36.7%) 대비 0.2%p 감소
  - 보증건수 기준 시 제조업종은 6.6%로 전월(7.0%)대비 0.4%p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업종은 35.3%로 전월(36.5%)대비 1.2%p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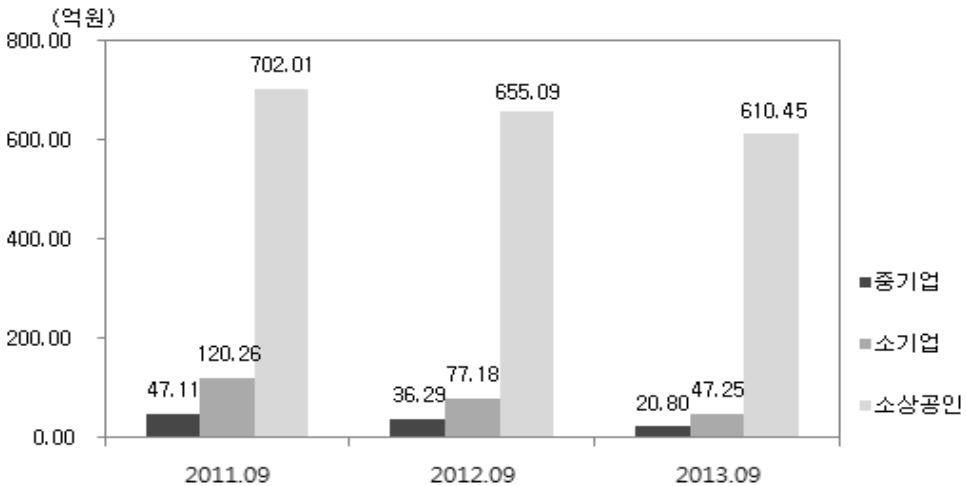
■ 서울의 9월 소상공인 지원금액 비중 전월대비 감소

- 기업규모별 신용보증지원 비중은, 소상공인이 금액기준 90.0%로 전월대비 1.1%p 감소하였고 건수기준 95.5%로 전월대비 0.5%p 감소
- 소기업 지원 비중은 금액기준으로 7.0%로 전월대비 1.0%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 2.9%로 전월대비 0.3%p 증가
- 중기업 지원비중은 금액기준으로 3.1%로 전월대비 0.1%p 증가하였고 건수기준으로는 1.5%로 전월대비 0.2%p 증가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업종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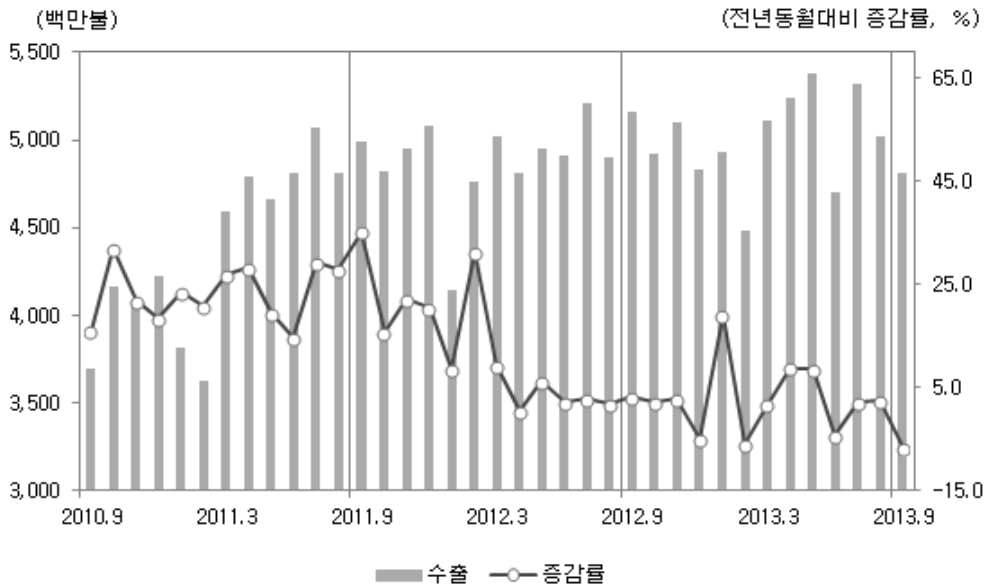


자료 :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기업규모별 공급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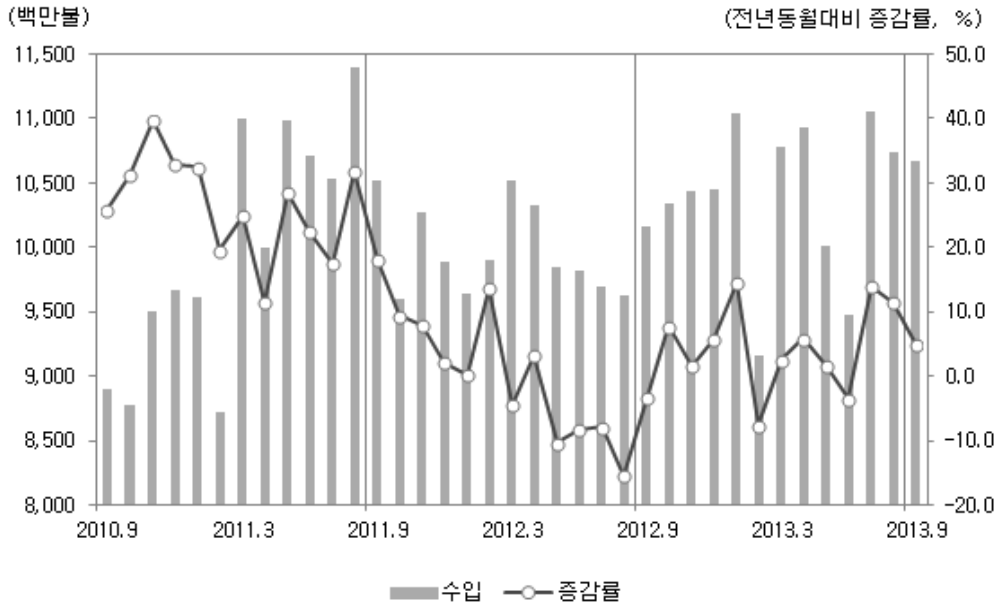
## | 수 · 출 · 입 |

- 서울의 9월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수입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수출은 48.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6.6% 감소하였고 수입은 10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전국의 수출은 446.7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하였고 수입은 410.2억 달러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3.6% 감소
  
- 서울의 9월 수출 1순위는 자동차부품, 수입 1순위는 석유제품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자동차부품이 472백만불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석유제품이 1,041백만불을 기록하였고 다음은 반도체, 의류, 자동차, 컴퓨터 등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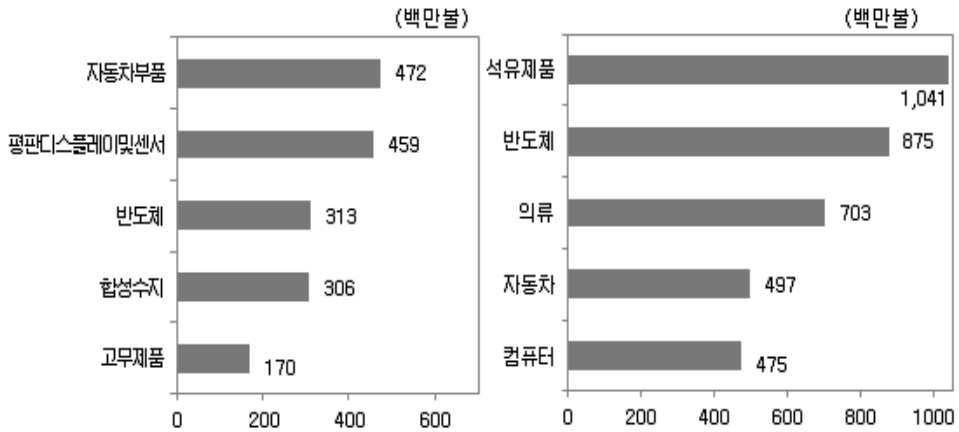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출액 및 증감률 추이



자료 : 무역협회

<그림> 서울시 수입액 및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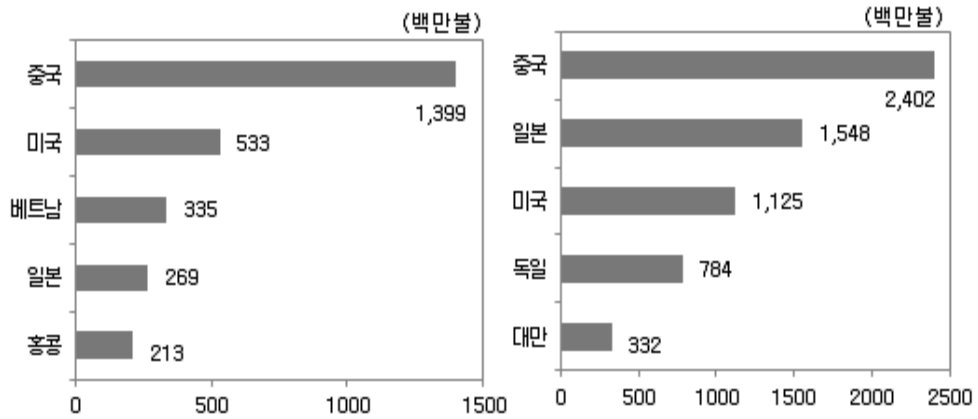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그림>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출액

<그림> 9월 서울시 품목별 수입액

■ 서울의 9월 수출입국 1순위는 중국

- 서울의 국가별 수출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9.5% 감소한 1,399백만불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미국, 베트남, 일본, 홍콩 순
- 서울의 국가별 수입의 경우, 중국이 전년동월대비 7.8% 증가한 2,402백만불을 기록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본, 미국, 독일, 대만 순



자료 : 무역협회

<그림>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출액

<그림> 9월 서울시 국가별 수입액

SEOUL ECONOMIC BULLETIN

# 부록: 통계표

부록  
통계표

■ 생 산

■ 고 용

■ 부 동 산

■ 금 용

1. 광공업 산업생산·출하·재고 지수

<2010=100>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원지수	계절조정	
2010	100.0	-	100.0	-	104.3	-	
2011	102.3	-	102.7	-	109.9	-	
2012	102.9	-	104.1	-	109.4	-	
2010.	3/4	94.9	101.8	92.0	101.0	99.0	97.8
	4/4	110.0	102.3	108.8	100.4	104.3	100.9
2011.	1/4	107.3	103.0	111.5	103.8	99.8	101.9
	2/4	92.5	99.1	90.8	98.2	100.6	103.7
	3/4	98.6	105.5	97.2	106.7	107.8	106.2
	4/4	110.6	102.9	111.4	103.1	109.9	106.0
2012.	1/4	110.2	105.0	115.3	107.1	103.5	105.7
	2/4	94.7	102.6	95.6	104.2	102.6	105.9
	3/4	97.3	104.1	94.5	104.1	106.9	105.1
	4/4	109.6	103.4	111.1	103.5	109.4	106.0
2013.	1/4	102.5	98.2	110.2	102.8	106.9	109.3
	2/4	89.8	96.5	91.3	99.1	104.1	107.8
	3/4p	89.5	96.7	89.5	99.5	111.3	110.1
2011.	9	103.9	106.2	103.0	107.3	107.8	106.2
	10	109.5	106.7	110.0	108.5	111.1	108.7
	11	106.9	101.0	104.4	97.8	110.6	106.9
	12	115.4	101.1	119.9	102.9	109.9	106.0
2012.	1	109.1	103.0	114.4	105.1	105.1	104.3
	2	108.7	106.9	115.1	109.7	101.1	102.4
	3	112.7	105.2	116.3	106.4	103.5	105.7
	4	98.7	103.2	101.7	105.0	102.5	104.4
	5	94.6	102.1	94.8	103.6	102.5	104.1
	6	90.8	102.6	90.3	104.1	102.6	105.9
	7	95.3	105.7	91.1	105.5	102.6	103.5
	8	97.8	105.3	96.1	105.7	103.7	104.5
	9	98.7	101.2	96.3	101.1	106.9	105.1
	10	105.9	103.1	104.9	103.2	110.3	107.9
	11	110.7	104.7	110.8	103.9	113.0	109.2
	12	112.2	102.3	117.5	103.5	109.4	106.0
2013.	1	107.1	95.3	114.6	99.8	106.4	105.0
	2	94.6	98.9	104.1	104.7	106.9	109.1
	3	105.8	100.3	112.0	103.9	106.9	109.3
	4	95.0	96.1	100.3	100.7	103.0	104.5
	5	90.0	96.0	86.8	94.4	105.2	106.7
	6	84.5	97.5	86.7	102.1	104.1	107.8
	7	84.0	92.2	83.6	96.4	110.0	110.8
	8p	90.0	97.2	90.0	99.4	110.8	111.7
	9p	94.5	100.7	94.8	102.6	111.3	110.1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2. 산업생산·출하·재고 증감률

<2010=100, 계절조정, 단위: %>

연 도	생 산			출 하			재 고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전월비	동월비	원지수
2010	-	5.2	100.0	-	6.7	100.0	-	1.3	104.3
2011	-	2.3	102.3	-	2.7	102.7	-	5.4	109.9
2012	-	0.6	102.9	-	1.4	104.1	-	-0.5	109.4
2010. 3/4	-1.8	-0.2	94.9	-2.0	1.8	92.0	2.3	-3.5	99.0
4/4	0.5	6.7	110.0	-0.6	6.9	108.8	3.2	1.3	104.3
2011. 1/4	0.7	8.8	107.3	3.4	7.1	111.5	1.0	1.0	99.8
2/4	-3.8	-4.0	92.5	-5.4	-4.5	90.8	1.8	8.3	100.6
3/4	6.5	3.9	98.6	8.7	5.7	97.2	2.4	8.9	107.8
4/4	-2.5	0.5	110.6	-3.4	2.4	111.4	-0.2	5.4	109.9
2012. 1/4	2.0	2.7	110.2	3.9	3.4	115.3	-0.3	3.7	103.5
2/4	-2.3	2.4	94.7	-2.7	5.3	95.6	0.2	2.0	102.6
3/4	1.5	-1.3	97.3	-0.1	-2.8	94.5	-0.8	-0.8	106.9
4/4	-0.7	-0.9	109.6	-0.6	-0.3	111.1	0.9	-0.5	109.4
2013. 1/4	-5.0	-7.0	102.5	-0.7	-4.4	110.2	3.1	3.3	106.9
2/4	-1.7	-5.2	89.8	-3.6	-4.5	91.3	-1.4	1.5	104.1
3/4p	0.2	-8.0	89.5	0.4	-5.3	89.5	2.1	4.1	111.3
2011. 9	-0.4	5.6	103.9	0.4	7.2	103.0	1.8	8.9	107.8
10	0.5	3.7	109.5	1.1	6.2	110.0	2.4	6.4	111.1
11	-5.3	-1.3	106.9	-9.9	-1.6	104.4	-1.7	6.6	110.6
12	0.1	-0.7	115.4	5.2	2.7	119.9	-0.8	5.4	109.9
2012. 1	1.9	-7.4	109.1	2.1	-8.0	114.4	-1.6	2.6	105.1
2	3.8	17.1	108.7	4.4	17.9	115.1	-1.8	1.4	101.1
3	-1.6	1.3	112.7	-3.0	3.2	116.3	3.2	3.7	103.5
4	-1.9	-0.7	98.7	-1.3	2.9	101.7	-1.2	0.9	102.5
5	-1.1	4.8	94.6	-1.3	7.7	94.8	-0.3	0.4	102.5
6	0.5	3.4	90.8	0.5	5.5	90.3	1.7	2.0	102.6
7	3.0	2.5	95.3	1.3	-0.1	91.1	-2.3	-1.5	102.6
8	-0.4	-1.1	97.8	0.2	-1.3	96.1	1.0	0.0	103.7
9	-3.9	-5.0	98.7	-4.4	-6.5	96.3	0.6	-0.8	106.9
10	1.9	-3.3	105.9	2.1	-4.6	104.9	2.7	-0.7	110.3
11	1.6	3.6	110.7	0.7	6.1	110.8	1.2	2.2	113.0
12	-2.3	-2.8	112.2	-0.4	-2.0	117.5	-2.9	-0.5	109.4
2013. 1	-6.8	-1.8	107.1	-3.6	0.2	114.6	-0.9	1.2	106.4
2	3.8	-13.0	94.6	4.9	-9.6	104.1	3.9	5.7	106.9
3	1.4	-6.1	105.8	-0.8	-3.7	112.0	0.2	3.3	106.9
4	-4.2	-3.7	95.0	-3.1	-1.4	100.3	-4.4	0.5	103.0
5	-0.1	-4.9	90.0	-6.3	-8.4	86.8	2.1	2.6	105.2
6	1.6	-6.9	84.5	8.2	-4.0	86.7	1.0	1.5	104.1
7	-5.4	-11.9	84.0	-5.6	-8.2	83.6	2.8	7.2	110.0
8p	5.4	-8.0	90.0	3.1	-6.3	90.0	0.8	6.8	110.8
9p	3.6	-4.3	94.5	3.2	-1.6	94.8	-1.4	4.1	111.3

주: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전월비는 계절조정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 r은 확정치, p는 잠정치를 나타냄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1. 2013년 9월 서울시 고용동향

<단위: 천명, %, %p>

	2012.9	2013.8	2013.9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15세이상인구	8,466	8,531	8,524	58	0.7
경제활동인구	5,269	5,294	5,320	52	1.0
(참가율)	(62.2)	(62.1)	(62.4)	(0.2p)	-
남 자	2,974	2,974	2,986	12	0.4
(참가율)	(72.9)	(72.6)	(73.0)	(0.1p)	-
여 자	2,294	2,319	2,335	40	1.8
(참가율)	(52.3)	(52.3)	(52.7)	(0.4p)	-
취 업 자	5,057	5,093	5,138	82	1.6
(고용률)	(59.7)	(59.7)	(60.3)	(0.6p)	-
농림어업	9	4	4	-4	-48.2
광공업	510	472	493	-17	-3.4
· 제조업	510	470	491	-19	-3.8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4,538	4,618	4,641	103	2.3
· 건설업	346	321	334	-12	-3.6
· 도소매·음식숙박업	1,326	1,314	1,347	21	1.6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2,045	2,088	2,083	38	1.8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820	895	877	57	6.9
실 업 자	212	201	182	-30	-14.1
(실업률)	(4.0)	(3.8)	(3.4)	(-0.6p)	-
비경제활동인구	3,197	3,237	3,204	7	0.2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 2. 2013년 9월 직업별, 성별, 종사상지위별,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명, %〉

		2012.9	2013.8	2013.9	전년동월대비	
					증 감	증감률
합 계		5,057	5,093	5,138	82	1.6
직 업 별	관리자전문가	1,414	1,524	1,524	110	7.8
	사무종사자	1,048	1,034	1,039	-9	-0.8
	서비스판매종사자	1,195	1,196	1,224	29	2.4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14	7	7	-8	-53.2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86	1,332	1,345	-41	-2.9
성 별	남자	2,845	2,846	2,875	30	1.1
	여자	2,212	2,247	2,264	52	2.3
종 사 상 지 위 별	비임금근로자	1,153	1,099	1,099	-54	-4.7
	자영업주	982	937	937	-45	-4.6
	무급가족종사자	171	162	162	-9	-5.5
	임금근로자	3,904	3,994	4,039	136	3.5
	상용근로자	2,393	2,580	2,592	199	8.3
	임시근로자	1,118	1,080	1,098	-20	-1.8
	일용근로자	393	333	349	-43	-11.0
취 업 시 간 대 별	36시간 미만	545	1,852	581	36	6.6
	1-17시간	216	266	191	-26	-11.9
	18-35시간	329	1,586	390	62	18.8
	36시간 이상	4,448	3,100	4,502	54	1.2
	36-53시간	3,304	2,270	3,453	149	4.5
	54시간이상	1,144	830	1,049	-95	-8.3
	일 시 휴 직	63	142	55	-8	-12.8
	주당평균취업시간	44.7	39.0	44.3	-0.4	-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3. 취업자·실업자·실업률·비경제활동인구 증감률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p>

연 도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2009.	10	4,840	-1.4	192	3.4	3,306	3.2	
	11	4,879	-0.4	216	11.3	3,248	1.8	
	12	4,877	0.5	208	6.6	3,261	0.7	
2010.	4	4,925	1.9	264	3.9	3,184	-1.2	
	5	4,995	2.9	219	-9.1	3,167	-1.7	
	6	4,988	2.0	221	-5.8	3,177	-0.7	
	7	5,013	3.1	234	-4.8	3,144	-2.4	
	8	4,962	3.6	223	-0.3	3,209	-3.4	
	9	4,960	3.3	225	5.1	3,210	-3.3	
	10	4,972	2.7	239	24.1	3,186	-3.6	
	11	4,981	2.1	213	-1.5	3,206	-1.3	
	12	4,998	2.5	224	7.3	3,184	-2.4	
	2011.	4	5,021	1.9	263	-0.2	3,125	-1.9
		5	5,074	1.6	243	11.1	3,097	-2.2
		6	5,098	2.2	236	6.7	3,079	-3.1
7		5,089	1.5	226	-3.5	3,093	-1.6	
8		4,962	1.4	223	1.7	3,141	-2.1	
9		4,979	1.4	223	107	3,141	-2.1	
10		5,024	1.0	210	-12.0	3,147	-1.2	
11		5,018	0.7	208	-2.4	3,150	-1.8	
12		4,971	-0.5	223	-0.3	3,181	-0.1	
2012.		1	4,925	0.2	241	-2.3	3,220	-0.8
		2	4,925	-4.0	287	13.0	3,168	-0.6
		3	4,991	0.2	253	-11.5	3,164	0.7
	4	5,061	0.8	233	-11.7	3,124	0.0	
	5	5,115	0.8	216	-11.1	3,099	0.1	
	6	5,105	0.1	226	-4.2	3,110	1.0	
	7	5,102	0.3	221	-2.0	3,130	1.2	
	8	5,035	0.1	224	-1.1	3,201	1.9	
	9	5,057	1.6	212	-8.3	3,197	0.6	
	10	5,043	0.4	188	-10.4	3,241	3.0	
	11	5,029	0.2	188	-9.4	3,264	3.6	
	12	5,027	1.1	178	-20.0	3,289	3.4	
2013.	1	5,011	1.7	204	-15.6	3,285	2.0	
	2	4,984	0.8	241	-16.0	3,283	3.6	
	3	4,999	0.2	265	4.7	3,251	2.7	
	4	5,073	0.2	226	-2.9	3,224	3.2	
	5	5,114	0.0	229	5.9	3,188	2.9	
	6	5,141	0.7	211	-6.5	3,188	2.5	
	7	5,141	0.8	196	-11.4	3,201	2.3	
	8	5,093	1.1	201	-10.4	3,237	1.1	
	9	5,138	1.6	182	-14.1	3,204	0.2	

자료: 경인지방통계청

## 1. 주택매매가격 지수

&lt;2013.3 = 100.0&gt;

연 도	전국 주택매매가 격 종합지수	주택매매가격 종합지수			아파트매매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8	90.7	101.8	102.1	101.5	105.8	106.9	104.8
2009	92.0	104.5	104.1	105.0	108.5	107.9	109.0
2010. 1	92.1	104.6	104.2	105.1	108.6	107.9	109.1
2	92.4	104.9	104.3	105.5	108.9	108.0	109.6
3	92.6	105.0	104.4	105.5	108.8	108.0	109.6
4	92.8	104.9	104.3	105.5	108.7	107.7	109.5
5	92.9	104.7	104.1	105.3	108.3	107.4	109.0
6	92.9	104.3	103.7	104.9	107.6	106.7	108.5
7	92.8	104.0	103.4	104.5	107.1	106.1	107.9
8	92.7	103.6	103.1	104.1	106.6	105.7	107.4
9	92.8	103.4	102.8	104.0	106.3	105.4	107.1
10	93.0	103.3	102.7	103.9	106.1	105.1	107.0
11	93.4	103.2	102.6	103.8	106.0	105.0	106.9
12	93.8	103.3	102.6	104.0	106.1	105.0	107.0
2011. 1	94.2	103.4	102.7	104.2	106.3	105.1	107.3
2	94.9	103.7	102.8	104.6	106.6	105.3	107.7
3	95.9	103.9	103.1	104.8	106.7	105.4	107.9
4	96.7	104.0	103.2	104.8	106.7	105.4	107.8
5	97.3	104.0	103.2	104.8	106.7	105.4	107.7
6	97.8	104.0	103.2	104.7	106.5	105.4	107.5
7	98.2	103.9	103.2	104.6	106.4	105.2	107.3
8	98.7	103.9	103.1	104.6	106.2	105.1	107.2
9	99.2	103.8	103.1	104.6	106.1	105.0	107.1
10	99.6	103.8	103.0	104.5	106.0	105.0	106.9
11	100.0	103.7	103.0	104.4	105.8	104.9	106.6
12	100.2	103.6	102.9	104.3	105.6	104.8	106.4
2012. 1	100.3	103.5	102.8	104.1	105.5	104.7	106.1
2	100.5	103.4	102.8	104.0	105.3	104.6	105.9
3	100.7	103.3	102.7	103.8	105.1	104.4	105.6
4	100.8	103.0	102.5	103.5	104.6	104.1	105.0
5	100.8	102.8	102.4	103.3	104.3	103.9	104.7
6	100.8	102.6	102.2	103.0	104.0	103.6	104.3
7	100.7	102.2	101.9	102.5	103.4	103.1	103.7
8	100.6	101.9	101.7	102.2	103.0	102.8	103.1
9	100.4	101.5	101.4	101.6	102.3	102.3	102.3
10	100.3	101.1	101.0	101.2	101.7	101.6	101.7
11	100.2	100.9	100.7	101.0	101.3	101.2	101.3
12	100.2	100.6	100.6	100.6	100.9	100.9	100.9
2013. 1	100.1	100.4	100.4	100.4	100.5	100.6	100.5
2	100.0	100.2	100.2	100.2	100.3	100.3	100.2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0	99.9	99.9	99.9	99.9	99.8	99.9
5	100.0	99.9	99.8	99.9	99.8	99.7	99.9
6	99.9	99.7	99.6	99.8	99.6	99.5	99.7
7	99.9	99.5	99.4	99.6	99.3	99.1	99.4
8	99.9	99.3	99.1	99.5	99.0	98.7	99.2
9	100.0	99.3	99.0	99.5	98.9	98.6	99.2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2. 주택전세가격 지수

<2013.3=100.0>

연 도	전국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주택전세가격 종합지수			아파트전세가격 지수		
		서울	강북	강남	서울	강북	강남
2008	76.9	77.6	80.6	74.9	73.4	76.3	71.0
2009	79.5	82.3	83.8	80.8	79.3	80.4	78.4
2010. 1	79.8	82.6	83.9	81.3	79.7	80.6	79.1
2	80.3	83.2	84.4	82.0	80.5	81.1	80.0
3	80.8	83.8	85.1	82.5	81.1	81.9	80.4
4	81.3	84.3	85.6	83.0	81.5	82.3	80.8
5	81.7	84.5	85.8	83.2	81.7	82.5	81.1
6	82.0	84.6	85.8	83.4	81.8	82.5	81.3
7	82.2	84.7	85.8	83.5	81.9	82.4	81.5
8	82.5	84.9	86.0	83.9	82.1	82.5	81.7
9	83.0	85.5	86.5	84.5	82.6	83.0	82.3
10	83.7	86.3	87.2	85.4	83.6	83.9	83.3
11	84.6	87.0	87.7	86.3	84.5	84.6	84.4
12	85.2	87.5	88.1	87.0	85.2	84.9	85.3
2011. 1	85.9	88.4	88.8	87.9	86.1	85.8	86.4
2	87.3	89.9	90.4	89.4	87.9	87.8	88.0
3	88.9	91.1	91.8	90.5	89.5	89.8	89.3
4	89.9	91.7	92.3	91.1	90.1	90.5	89.8
5	90.7	92.1	92.6	91.5	90.4	90.8	90.0
6	91.3	92.5	92.9	92.1	90.8	91.1	90.6
7	92.0	93.3	93.6	93.0	91.8	92.0	91.7
8	93.0	94.5	94.7	94.2	93.4	93.6	93.2
9	94.3	96.0	96.3	95.8	95.5	95.8	95.2
10	95.1	96.9	97.2	96.6	96.5	97.0	96.0
11	95.6	97.1	97.5	96.7	96.7	97.5	96.2
12	95.7	97.0	97.4	96.6	96.6	97.3	96.0
2012. 1	95.9	97.0	97.5	96.6	96.5	97.3	95.9
2	96.3	97.3	97.7	96.8	96.7	97.5	96.1
3	96.7	97.5	98.0	97.0	96.9	97.8	96.3
4	97.1	97.6	98.2	97.0	97.0	97.9	96.2
5	97.3	97.6	98.3	96.9	96.9	97.9	96.1
6	97.4	97.6	98.3	96.9	96.9	97.8	96.1
7	97.6	97.6	98.2	96.9	96.8	97.8	96.0
8	97.7	97.6	98.3	97.0	96.8	97.8	96.0
9	98.0	98.0	98.6	97.4	97.3	98.2	96.6
10	98.5	98.5	98.9	98.0	98.0	98.6	97.4
11	98.9	98.8	99.1	98.5	98.5	98.8	98.2
12	99.1	99.0	99.1	98.9	98.7	98.9	98.6
2013. 1	99.3	99.2	99.3	99.2	99.0	99.0	99.0
2	99.6	99.6	99.5	99.6	99.5	99.4	99.5
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100.4	100.3	100.3	100.4	100.4	100.4	100.5
5	100.6	100.5	100.4	100.6	100.6	100.6	100.7
6	100.8	100.7	100.6	100.8	100.9	100.8	100.9
7	101.1	101.2	101.1	101.3	101.5	101.5	101.6
8	101.7	102.1	101.9	102.2	102.5	102.5	102.6
9	102.5	103.1	102.9	103.3	104.0	103.9	104.1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말잔기준

## 3. 2013년 9월 서울시 자치구별 주택·아파트 가격지수 및 아파트 3.3㎡당 매매가격

&lt;2013.3=100.0&gt;

구 분	주 택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매매가격지수	전세가격지수	3.3㎡당 매매가격
강 북 구	99.3	102.1	99.3	105.0	1,067
광 진 구	99.5	102.0	98.7	103.9	1,720
노 원 구	98.5	102.9	98.5	103.5	1,087
도 봉 구	98.9	104.6	98.5	104.2	1,000
동대문구	99.1	102.6	98.4	102.5	1,207
마 포 구	99.2	102.6	99.0	104.2	1,598
서대문구	99.4	103.2	99.4	104.2	1,212
성 동 구	98.6	104.7	98.2	105.2	1,614
성 북 구	99.6	103.8	98.9	105.6	1,192
용 산 구	97.7	102.6	97.8	102.2	2,312
은 평 구	99.3	102.4	98.5	104.4	1,201
종 로 구	99.9	101.8	99.4	102.6	1,594
중 구	99.7	103.1	99.3	104.0	1,648
중 랑 구	98.8	101.9	98.6	101.5	1,063
강 남 구	99.4	103.2	99.0	103.1	2,846
강 동 구	99.6	102.9	99.2	103.3	1,601
강 서 구	99.3	105.0	98.7	107.1	1,243
관 약 구	99.8	103.0	99.3	104.1	1,192
구 로 구	99.4	103.8	98.9	104.3	1,141
금 천 구	99.6	103.3	98.5	103.4	966
동 작 구	99.6	102.3	99.0	103.6	1,496
서 초 구	99.8	102.4	99.9	102.2	2,616
송 파 구	99.8	103.7	100.0	104.9	2,126
양 천 구	99.0	103.0	98.7	104.5	1,691
영등포구	98.9	103.3	99.0	104.2	1,511

주: 아파트 평당매매가 (단위: 만원/3.3㎡), 2013년 3월부터 <2013.3 = 100.0> 기준으로 변경됨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부동산 114

1. 주요 금융지표

<기말, 단위:%,p>

연 도	국고채(3년)	회사채(3년)	CD(91일)	콜금리	종합주가지수	환률(₩/US\$)
2008	5.27	7.02	5.49	4.78	1,529.5	1,102.6
2009	4.04	5.81	2.63	1.98	1,429.0	1,276.4
2010. 1	4.29	5.40	2.88	2.00	1,682.2	1,138.8
2	4.19	5.32	2.88	2.00	1,599.0	1,156.8
3	3.94	5.02	2.83	2.01	1,665.5	1,136.1
4	3.77	4.69	2.51	2.00	1,730.3	1,115.7
5	3.70	4.48	2.45	2.01	1,648.3	1,168.4
6	3.75	4.65	2.45	2.00	1,691.9	1,214.0
7	3.88	4.81	2.58	2.21	1,731.1	1,204.9
8	3.73	4.68	2.63	2.27	1,762.2	1,180.1
9	3.48	4.41	2.66	2.27	1,815.8	1,162.9
10	3.24	4.13	2.66	2.26	1,889.7	1,122.2
11	3.40	4.19	2.73	2.37	1,924.7	1,128.1
12	3.25	4.17	2.80	2.50	2,002.5	1,147.5
2011. 1	3.71	4.52	2.93	2.66	2,091.6	1,120.1
2	3.94	4.72	3.13	2.75	2,002.8	1,118.1
3	3.74	4.54	3.35	2.92	2,002.6	1,122.4
4	3.74	4.54	3.40	3.01	2,153.1	1,086.8
5	3.66	4.44	3.46	3.02	2,121.8	1,083.5
6	3.65	4.40	3.53	3.21	2,074.6	1,081.3
7	3.77	4.48	3.59	3.26	2,150.0	1,059.5
8	3.57	4.29	3.59	3.25	1,869.4	1,073.1
9	3.45	4.24	3.58	3.25	1,790.9	1,118.6
10	3.47	4.29	3.58	3.24	1,825.8	1,155.4
11	3.39	4.24	3.56	3.26	1,858.8	1,132.3
12	3.36	4.24	3.55	3.26	1,863.2	1,147.5
2012. 1	3.37	4.24	3.55	3.26	1,891.0	1,145.8
2	3.43	4.25	3.53	3.25	2,003.2	1,123.4
3	3.55	4.36	3.54	3.25	2,023.4	1,125.9
4	3.50	4.25	3.54	3.25	1,995.9	1,135.5
5	3.38	4.01	3.54	3.26	1,886.4	1,154.3
6	3.29	3.87	3.54	3.26	1,848.6	1,165.5
7	3.01	3.60	3.34	3.08	1,826.8	1,143.4
8	2.83	3.40	3.19	3.00	1,918.9	1,131.7
9	2.81	3.31	3.14	2.99	1,961.3	1,124.8
10	2.78	3.30	2.93	2.80	1,942.2	1,106.9
11	2.80	3.32	2.85	2.75	1,904.7	1,087.5
12	2.85	3.30	2.88	2.75	1,973.8	1,077.0
2013. 1	2.75	3.20	2.86	2.76	1,986.1	1,065.4
2	2.70	3.06	2.83	2.75	1,979.9	1,086.7
3	2.60	2.95	2.81	2.74	1,990.2	1,102.2
4	2.55	2.91	2.80	2.75	1,938.9	1,121.8
5	2.59	2.96	2.72	2.55	1,974.5	1,110.7
6	2.87	3.24	2.69	2.49	1,884.4	1,135.2
7	2.91	3.38	2.68	2.48	1,871.8	1,127.2
8	2.94	3.33	2.66	2.50	1,897.0	1,117.0
9	2.90	3.29	2.66	2.50	1,984.4	1,087.4

자료: 한국은행



2.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어음부도율

<단위: 개, %>

연 도	신설법인수				어음부도율	부도업체수
	서울 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8	18,133	1,717	1,520	14,865	0.02	977
2009	20,401	3,081	1,402	15,838	0.02	741
2010. 1	1,812	286	150	1,360	0.03	51
2	1,633	248	132	1,247	0.03	38
3	2,044	342	158	1,539	0.02	48
4	1,946	283	141	1,513	0.03	41
5	1,669	257	120	1,286	0.03	45
6	1,871	300	126	1,438	0.03	42
7	1,850	313	122	1,412	0.03	56
8	1,686	264	104	1,310	0.04	58
9	1,485	243	85	1,148	0.03	49
10	1,699	277	99	1,319	0.02	48
11	1,847	257	122	1,458	0.02	51
12	1,938	299	103	1,524	0.01	64
2011. 1	2,000	283	138	1,566	0.01	26
2	1,501	222	104	1,165	0.02	45
3	2,055	222	131	1,677	0.02	51
4	2,021	258	131	1,671	0.03	53
5	1,844	209	132	1,489	0.02	53
6	2,046	282	116	1,633	0.04	40
7	1,918	277	120	1,512	0.01	45
8	1,752	244	95	1,401	0.01	45
9	1,597	203	85	1,301	0.01	35
10	1,767	217	84	1,459	0.01	40
11	1,804	228	111	1,452	0.01	53
12	2,181	340	121	1,708	0.01	54
2012. 1	1,939	236	117	1,578	0.01	30
2	2,200	292	145	1,738	0.01	37
3	2,167	275	134	1,742	0.01	35
4	2,165	243	137	1,667	0.02	37
5	2,186	253	148	1,775	0.01	32
6	2,182	303	130	1,736	0.01	34
7	2,273	343	123	1,789	0.02	33
8	1,961	254	115	1,582	0.02	37
9	1,949	263	113	1,565	0.01	44
10	1,903	225	103	1,561	0.02	40
11	1,972	248	86	1,625	0.03	33
12	1,871	240	92	1,529	0.02	40
2013. 1	2,283	325	133	1,809	0.02	30
2	1,850	230	99	1,512	0.01	31
3	2,099	263	119	1,706	0.01	31
4	2,078	277	118	1,670	0.02	39
5	2,140	279	129	1,721	0.02	29
6	1,947	300	113	1,518	0.01	20
7	2,267	360	122	1,770	0.01	38
8	2,065	246	126	1,683	0.01	33
9	1,737	238	87	1,406	0.04	30

자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3. 서울시 신설법인수 및 증감률

<단위: 개, %>

구 분	2013년			전월비	
	7월	8월	9월	증감	증감률
<b>서울 계</b>	2,267	2,065	1,737	-328	-15.9
농업, 임업, 어업 및 광업 계	15	10	6	-4	-40.0
<b>제조업 계</b>	360	246	238	-8	-3.3
음.식료품 및 음료제조업	42	29	32	3	10.3
섬유 및 가죽	71	49	45	-4	-8.2
목재, 가구 및 종이제품	12	6	15	9	150.0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0	14	5	-9	-64.3
고무 및 화학제품	65	33	37	4	12.1
기계, 금속	39	27	27	0	0.0
전기, 전자 및 정밀기기	92	55	55	0	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운송장비	4	6	4	-2	-33.3
기타 제품제조업	25	27	18	-9	-33.3
<b>건설업 계</b>	122	126	87	-39	-31.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8	6	5	-1	-16.7
건설업	114	120	82	-38	-31.7
<b>서비스업 계</b>	1,770	1,683	1,406	-277	-16.5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업	2	1	1	0	0.0
도매 및 소매업	518	469	423	-46	-9.8
운수업	39	44	34	-10	-22.7
숙박 및 음식점업	43	49	31	-18	-36.7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36	333	282	-51	-15.3
금융 및 보험업	209	215	190	-25	-11.6
부동산업 및 임대업	113	120	88	-32	-26.7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279	261	200	-61	-23.4
사업시설관리 및 지원서비스업	104	83	70	-13	-15.7
교육서비스업	59	57	44	-13	-22.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5	4	3	-1	-2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서비스업	30	17	22	5	29.4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33	30	18	-12	-40.0

자료: 중소기업청

## | 자 · 료 · 출 · 처 |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9월 서울시 산업활동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9월 서울시 고용동향」  
경인지방통계청, 「2013년 9월 서울시 소비자물기동향」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농수산물유통공사, 「<http://www.garak.co.kr/youtong>」  
관세청, 「2013년 9월 수출입 및 무역수지동향」  
국민은행연구소, 「2013년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부동산114, 「2013년 9월 서울시 아파트 평당매매가격」  
중소기업청, 「2013년 9월 중 신설법인 동향」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조사통계시스템, 「<http://stat2.smba.go.kr>」  
통계청, 「2013년 9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2013년 9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3년 9월 소비자물기동향」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kr>」  
한국무역협회, 무역정보네트워크, 「<http://stat.kita.net>」  
한국은행, 「2013년 9월중 어음부도율 동향」  
한국은행, 「2013년 9월중 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서울특별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 「<http://land.seoul.go.kr/land>」

## 서울경제 주요기사목록 (2005년 3월호 ~ 2013년 10월호)

### 2005년

**3월호** | 권두칼럼: 우리 모두 소임을 다하자(조순)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도심산업생태계의 동향과 전망 (정병순)

**4월호** | 권두칼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공병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관한 소고(박희석)

**5월호** | 권두칼럼: 인구고령화와 사회경제 공간(박삼욱) | 경제포커스: 서울시 산학연협력의 실태와 시사점(신창호) | 서울디지털 산업단지의 제도약 및 향후 발전방안(김선웅, 김경배, 윤형호, 조지선)

**6월호** | 권두칼럼: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김정호) | 경제포커스: 최근 부동산 안정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설문조사(박희석, 안지선, 최태림) | 2005년 하반기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7월호** | 권두칼럼: 혁신(Innovation)에 대한 근본적 이해(윤현덕) | 경제포커스: 국제금융도시, 서울을 위하여(정창무) | 최근 부동산 문제와 정책 방향(김현아)

**8월호** | 권두칼럼: 문화산업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은?(김형국)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의 현황 및 육성정책(박위진) | 문화향수 확대를 위한 문화 마케팅 전략(라도삼, 박종구, 이종규, 공자원)

**9월호** | 권두칼럼: 청계천 복원사업의 리더쉽과 신한류(황기연) | 경제포커스: 청계천복원사업의 도심재생 효과(임희지) | 청계천복원사업의 비용편익과 경제적 효과(이영성) | 전문가 의견 및 설문조사: 도심 명소로서 청계천의 미래상(박희석, 이승지)

**10월호** | 권두칼럼: 신 고유가시대를 대비하자(김진호) | 경제포커스: 최근 고유가의 서울경제 파급효과 분석(박희석) | 고유가 시대의 대응 방안(오승구)

**11월호** | 권두칼럼: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김성진) | 경제포커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한정화)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방안(홍순영)

**12월호** | 권두칼럼: 8.31 부동산세제 평가(나성린) | 경제포커스: 8.31대책과 주요쟁점들(서승환) | 2006년 서울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 2006년

**1월호** | 권두칼럼: 윤리경영, 환경경영(조동성) | 경제포커스: 인쇄업 인적자원개발(윤형호) | 서울시 인쇄출판 산업 클러스터 도출 및 활성화 방안(박희석, 홍나미) | 자치구경제이슈: 「종로청계 관광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성린)

**2월호** | 권두칼럼: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왕연균) | 경제포커스: 수도권집중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재인식(김경환) | 수도권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정희운) | 자치구경제이슈: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전성근)

**3월호** | 이달의 이슈: 최근 서울 경기 향방은 어디로...(박희석) | 경제포커스: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 도심산업의 동향과 전망II(정병순) | 종로 귀금속·보석 클러스터의 재발전(박래현) | 자치구 경제이슈: 「용산전자상가 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오근)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도시 서울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신창호) | 경제포커스: 수도권 테마파크 현황과 발전방안(윤형호) | 클러스터 지형도 작성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방안(이병민) | 자치구 경제이슈: 「광진구 재래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석근)

**5월호** | 이달의 이슈: 양극화 현안,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정병순) | 경제포커스: 대·중소기업 양극화 현황과 완화방안(최경규) | 지역불균형 및 양극화 진단과 해소방안(김상일)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 약령시 한방산업특구」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동직)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신창호) | 경제포커스: 서울시 2006년 하반기 경제전망(윤형호, 최태림) |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의 본질에 대한 이해(이동기) | 전문가 의견조사: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기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 세계 속의 서초를 향하여(황인식)

**7월호** | 이달의 이슈: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의 허(虛)와 실(實)(송용일) | 경제포커스: 혁신중소기업과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최경규) | 한국기술평가의 현황(양동우) | 자치구 경제이슈: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조유근)

**8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환경과 지역가치(리도삼) | 경제포커스: 서울시 창조산업의 경제적 성과와 집적화 동향(구문모) | 새로운 영화산업의 중심지 서울강남지역의 특성(주성재) | 자치구 경제이슈: 「첨단업무단지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정성용)

**9월호** | 이달의 이슈: 학교선택권 확대 충분조건과 필요조건(박정수) | 경제포커스: 우리나라의 교육 경쟁력 평가와 대책(김진영) | 대학재정의 현황과 발전방안(안종석) | 자치구 경제이슈: 「우량기업 유치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임일영)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관광과 컨벤션은 신성장동력인가?(김철원) | 경제포커스: 도시마케팅의 현황과 발전방안(김찬동) | 시민과 관광객이 서로 어울리는 서울 도시관광의 미래상(박종구) | 자치구 경제이슈: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이기)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세계화 서울의 외국인 마을(김은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외국인 현황과 특성(윤형호) | 서울시 외국인 투자경영환경과 투자유치를 위한 과제(최경규)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대책(윤병구)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4대 산업벨트 조성을 경제 제도약의 계기로(신창호) | 경제포커스: 대도시권 경제의 미래와 서울의 도심산업 재활성화(정병순) | 서울시 2007년 경제전망(윤형호, 임석) | 심층의견조사: 2007년 서울시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 박지윤) | 자치구 경제이슈: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특별발전 전략(정경효)

## 2007년

2007년부터 서울경제 발행일이 <매월말일 당월호>에서 <매월말일 익월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 1월호는 발간되지 않으며, 2007년 1월 말일 발간되는 서울경제는 <서울경제 2월호>로 표기됩니다.

**2007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재생의 방향(오병호) | 경제포커스: 일본의 도시재생정책 추진체계와 시사점(양재섭, 김경원) | 도시 창조지수 및 창조집단의 분포 특성으로 본 도시재생 전략의 방향(신성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금융기관대출금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오피스시장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인프라가 튼튼하여 잘사는 관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용중)

**2007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고령자 취업정책(황진수) | 경제포커스: 서울시 고령자 재취업 특성 분석(윤형호) | 서울시 고령자취업알선센터 취업자 현황(김은희) | 생생리포트: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신(강현주) | 자치구탐방: 「화곡유통단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방향(김영수)

**2007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블루오션, 서울시 중심의 동북아 의료허브 구상(박창일) | 경제포커스: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진료 시스템 구축 전략(김남현) | 의료산업을 바탕으로 한 의료관광 및 의료관광 네트워크(원윤희) | 생생리포트: 서울시 공원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윤·박희석) | 자치구

탐방: 「상암 DMC와 합정균형발전축진지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재형)

**2007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육성 전략(유병규) | 경제포커스: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현황과 발전과제(오천수) | 서울시 비즈니스서비스업의 도전과 응전(정병순) | 생생리포트: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중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경숙)

**2007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회의도시 지정의 효과(김철원) | 경제포커스: 국제회의 개최현황 통계 속의 전략적 의미(김기용) | 서울시 컨벤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진홍석) | 생생리포트: 동대문, '패션특별시, 서울' 을 꿈꾸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미아뉴타운과 미아균형발전축진지구 개발」을 통한 강북구 지역경제 활성화(이동명)

**2007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육성 방안(이윤보) | 경제포커스: 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실태와 정책과제(전인우) |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의 특례보증자금 지원효과(신창호)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에 대한 심층의견조사(박지희·박희석) | 자치구탐방: 「가재울뉴타운추진사업」에 따른 주변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윤내원)

**2007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신재생에너지의 과제와 비전(조경엽) | 경제포커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효과(부경진) | 신재생에너지 보급전략(조항문) | 생생리포트: 서울시 자치구별 지방세수 변화 추이(강현주) | 서울시 R&D 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박지희) | 자치구탐방: 합리적 도시계획을 통한 도봉구의 발전방안(최영수)

**2007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비스시장 개방(차문중) | 경제포커스: 법률시장 개방의 영향 및 효과(고준성) | 한미FTA 체결협정과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김범수)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체감경기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서울동북부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권장오)

**2007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환타지경제시대의 경쟁력과 디자인경영(정경원) | 경제포커스: 세계

디자인의 중심을 꿈꾸는 월드디자인플라자(신창호) | 유비쿼터스 시대의 도시디자인(최두은) | 생생리포트: '가능성에 올인' 애니메이션산업을 키운다(강현주) | 자치구탐방: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유경림)

**2007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공연예술산업(김문환) | 경제포커스: 문화예술과 서울시의 문화경제 지표(장광렬) | 뮤지컬, 그 판타지가 세계를 물들인다(박용재) | 생생리포트: 서울시 수출입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서울시 생활물가 변화 추이(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주윤중)

**2007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다양성 영화의 성장은 영화산업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름길(안정숙) | 경제포커스: 서울시 국제 홍보 방안으로서 영화산업(장동찬) | 서울시 드라마 산업(고정민) | 생생리포트: 황금알을 낳는 의약산업, 바이오벤처에 달렸다(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산업경제센터)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보석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여덕수)

## 2008년

**2008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도시 서울(김경환) | 경제포커스: 글로벌 도시, 서울 을 향하여(최재현) | 서울, 국제도시에서 세계도시로 도약(홍석기)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박지희) | 자치구탐방: 성수동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김상호)

**2008년 2월호** | 달의 이슈: 외국인 100만 시대의 외국인력정책(박영범) | 경제포커스: 외국인고용 허가제 시행 3년에 대한 평가(유길상) | 외국인력 정책과제(이규용)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변화 추이(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 서울시 대형소매점 판매액 추이(서울시경제발전연구원)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살리기로 지역경제 활성화(구자선)

**2008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새 방향과 서울의 역할(장윤중) | 경제포커스: 외국인직접투자 확대를 위한 제언(이홍식) | 외국인직접

투자 유치 정책의 질적 전환을 위한 제언(전영제)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별 이노비즈(Innobiz) 기업 현황(박희석·권태구) | 자치구탐방: 국제업무지구 개발과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기순)

**2008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통합적 도시브랜드로서의 디자인서울(박영순) | 경제포커스: 도시브랜드를 위한 통합 디자인(장동련) | 디자인 서울(윤종영) | 생생리포트: 국제 곡물 가격 추이(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영등포 벤처밸리 육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고광득)

**2008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예술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이유(전택수) | 경제포커스: 문화산업 투자시스템 개선 방안(육성수) | 서울시의 창의문화도시 계획(라도삼) | 생생리포트: 최근 고유가 추세가 서울 경제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동부서울의 성장거점도시화(황필성)

**2008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Carbonomics'의 미래(김정인) | 경제포커스: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고준호) | 탄소배출권 시장의 전망과 서울에서의 의의(이부형) | 생생리포트: 2008년 하반기 서울시민 체감경기전망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예비 벤처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윤영표)

**2008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자영업의 현황과 인프라(이상헌) | 경제포커스: 서울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조직화 및 협업화 과제와 정책방향(전인우) | 자영업 취업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손민중) | 생생리포트: 내수경기 침체시 서울지역 자영업의 위험성(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전통상권 살리기(김재형)

**2008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의 평가와 과제(박승록) | 경제포커스: 고유가 추이가 서울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박희석한진아) | 고유가와 민생대책(이달석) | 생생리포트: 유가급등의 원인과 대응전략(조달호김세훈) | 자치구탐방: 첨단디지털산업 육성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동욱)

**2008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외식업 활성화대책 및 육성방안(김태희) | 경제포커스: 외식업 창업지원 현황과 과제(이경희) |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윤남수) | 생생리포트: 경기도 민감하고 대형화하는 서울시 음식점업(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김태두)

**2008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 패션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발전방향(김영인) | 경제포커스: 서울패션브랜드, 세계 초일류의 꿈은 환상인가(김민자) | 동대문 패션상권 활성화 방안(조익래) | 생생리포트: 서울시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고찰(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가칭 「양재 R&D」 밸리 조성을 통한 서초구 지역경제 활성화(하익봉)

**2008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의료서비스산업의 시장경제원리 도입의 필요성(이주선) | 경제포커스: 영리병원 도입의 문제점과 대안(임준) | 서울시 의료관광 현황과 방향(윤형호) | 생생리포트: 데이터로 본 서울시 의료서비스산업의 특징과 전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강동구 집단에너지(CES) 공급사업(임수근)

**2008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저소득층 소득향상과 사회통합 과제(최경수) | 경제포커스: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해소 방안(이부형) | 저소득층의 활로 모색 - 3業 2助(김선빈) | 생생리포트: 서울시 개인파산의 현황과 특성(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도시기반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악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김용중)

매달 제공되던 생생리포트가 2009년부터 분기별로 게재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009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서울시 정책 방향(박희석) | 경제포커스: 2009 서울시 중소기업 지원방향(김선홍) |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선인명) | 생생리포트: 금융위기 속 서울의 부도법인 수 큰폭 증가(조달호이춘화)

화) | 자치구탐방: 삼각산 관광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정종규)

**2009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세계 물 산업 동향과 서울의 수도사업 발전방향(권형준) | 경제포커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물 산업 경쟁력 방안(윤형호) | 물 산업 측면에서 서울의 여건과 발전방향(윤주환)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경영 현대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지역경제 활성화(김백곤)

**2009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서울시의 방향(김정인)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활력형 녹색성장 촉진 방안(이정택) | 서울의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박병욱) | 자치구탐방: “상봉지구 재정비”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봉로)

**2009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녹색성장시대 지식 기반 제약산업 글로벌화(김성수) | 경제포커스: 바이오기술경영 및 규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바이오산업 추진방향 고찰(김문기) | 서울 바이오산업 발전방향(이상규) | 생생리포트: 서울시 녹색성장 효율성 평가(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진호)

**2009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산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전망과 서울시의 대응방안(부경진) | 경제포커스: 녹색도시를 위한 서울시 그린카 활성화(고준호) | 녹색성장을 위한 100조명 발전방안(주대영) | 자치구탐방: 서대문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심규표)

**2009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변양규) | 경제포커스: 서울시 일자리창출 방향과 전략 -일자리 창출 사례를 중심으로(윤형호) | 일자리 창출 증진을 위한 방안과 과제(허재준) | 자치구탐방: 강남구 탄소미일리지제도 운영(배영철)

**2009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우리나라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과 과제(김창석) | 경제포커스: 서울시 중심지 재생정책의 방향과 과제(양재섭·장남중·권미리) | 서울시 뉴타운산업의 현황과 개선을 위한 기본원칙(이왕건) | 자치구탐방: 노원, 전국 최고 도시를 꿈꾸다(권장오)

**2009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온라인 게임산업과 서울시의 전략(위정현) | 경제포커스: 대한민국 게임 산업, 그리고 새로운 10년(장현영) | 게임한류의 성과(김만규) | 자치구탐방: 성북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박경호)

**2009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국제금융중심지 서울-여건과 과제(최생림) | 경제포커스: 여의도 금융중심지 정주환경 개선방안(윤형호) | 서울시 국제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김창래) | 자치구탐방: 용산 전자유동단지 발전 및 이태원 관광특구 특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영환)

**2009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한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발자취와 미래 그리고 서울(김찬화) | 경제포커스: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방안 리뷰(여재천) | 제약 기업의 발전을 위한 M&A의 역할(윤수영) | 생생리포트: 서울시민 저축성향에 관한 설문조사(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취업정보은행」 활성화를 통한 고용촉진(김은혜)

**2009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글로벌 경제위기와 서울의 새로운 성장 전략(이장제) | 경제포커스: 지식기반도시를 향한 서울의 R&D 전략(문경일) | 장기불황을 극복한 일본기업의 R&D 사례와 시사점(이지평) | 자치구탐방: 「종로 귀금속 보석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최용순)

**2009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개방화시대 광역경제권의 부상과 수도권 전략(정희운) | 경제포커스: 수도권 광역경제권 효율적 네트워크 전략(김찬동)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방향과 수도권에의 시사점(김영수) | 자치구탐방: 새로운 전략거점 개발과 컬처노믹스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전략(이미령)

**2010년**

**2010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디자인노믹스의 등장과 서울의 대응전략(라도삼) | 경제포커스: 디자인을 꿈꾸고 디자인으로 성장하는 도시, 서울(최성호) | 도시명과 관련 상징물을 고려한 도시 이미지 디자인(홍석기) | 자치구탐방: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양성태)



**2010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무선인터넷을 통한 IT 서비스업 활성화(김성태) | 경제포커스: 반쪽 IT 강국, IT 서비스업 육성해야(임상수) | 국내 IT 서비스업 발전방안과 과제(김민성) | 자치구탐방: 종로, 지역의 역사가 곧 문화컨텐츠(최용순)

**2010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령자 가계 재정 분석(윤형호) | 경제포커스: 실버산업:인구고령화의 기회(김신영) | 실버산업의 유형과 장기적 전망(임춘식) | 자치구탐방: 금융뉴타운 조성을 통한 중구 브랜드 가치 제고(우상길)

<이달의 이슈>와 <경제포커스>로 구성되었던 서울경제가 4월호부터는 <이달의 이슈>로 통합되어 제공되며, <생생리포트>는 격월로 게재됩니다.

**2010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조영복) | 사회적기업의 가치와 향후 과제(정선희) | 생생리포트: 2008년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특성분석(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지역경제 초석 다지기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김태두)

**2010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SSM 진출에 따른 전통시장의 대응방안(김찬동) | SSM 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김유오) | 자치구탐방: 선진적 도시계획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안동수)

**2010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배출권거래제의 해외동향과 서울시의 시사점(박호정) |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대한 제언(진상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구인·구직 및 취업 실태와 특성(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동대문구 21C 도시발전을 위한 특화 전략사업(이종인)

**2010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융합시대의 IT산업의 방향(이성호) | 산업융합의 대두와 발전전략(서동혁) | 자치구탐방: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종인)

**2010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방향(문경일) |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지원정책(안재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소규모

개인사업체 변화추이 및 특성분석(박희석,오동훈,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김백곤)

**2010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전환기의 서울경제, IT산업의 제도약과 IT융합산업(정병순) | 소프트웨어 산업: 현황과 과제(김진형) | 자치구탐방: 마포의 성장 동력 4대 거점지역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황중익)

**2010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취업자의 추이분석을 통한 여성취업의 발전방안(조연숙) | 서울의 경력단절과 향후 과제(오은진) | 생생리포트: 서울시 여성 경제활동 실태와 특성 분석(조달호,이춘화) | 자치구탐방: 입체적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박상영)

**2010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지식기반체 조업의 역량강화 방안(김범식) |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에서의 지식기반 제조업의 발전방향(송재용) | 자치구탐방: 민간 기업과의 업무제휴를 통한 혁신적 일자리 창출(김찬식)

**2010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산업 실태와 특성 분석(김묵한) |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대한 해외사례(조창현) | 생생리포트: 상업공간으로서의 서울의 길(박희석,한진아) | 자치구탐방: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과 창업센터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오태섭)

## 2011년

**2011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은 글로벌 메가 시티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변미리) | 글로벌 메가 시티의 현황과 전망(정재영)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김기호)

**2011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현황과 지원방안(신경희) | 예비사회적기업과 여성(조선주) | 자치구탐방: 일자리 창출과 구민취업 두 마리 토끼잡기(이판수)

**2011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MICE 산업의 미래와 과제(반정화) | MICE 산업의 트렌드 및 대응과제(주영민) | 기업탐방: 서울형예비사회적기업SR센

터(조달호·정규진) | 자치구탐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이관수)

**2011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산업관광 뿔어보기(김목한) | 우리나라 산업관광의 미래발전방향(김상태) | 생생리포트: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문래 창작촌(박희석·한진아)

**2011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스마트 미디어 시대의 광고산업 변화(이종관) | 한미 FTA가 우리나라 광고산업에 미치는 영향(한상필) | 기업탐방: U-Healthcare 분야에서의 비트컴퓨터의 역학(조달호·정규진)

**2011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일자리 창출을 위한 1인창조기업 육성방안(이갑수) | 1인창조기업의 시대를 맞아(안남우) | 생생리포트: 서울시 도매업의 변화추이와 특성분석(박희석·양승희)

**2011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고용취약계층과 유연근무제 활성화(김태홍) | 서울시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방안(진중순) | 생생리포트: 2011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박희석·한진아) | 서울지역 2/4분기 소비자 및 기업 체감경기 전망(박희석·한진아)

**2011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10%의 기업이 40%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김선화)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조호정)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바이오메디컬(박희석·양승희)

**2011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한미 FTA와 서울시 정책과제(김도훈) | 한미 FTA와 서울의 금융서비스산업(성한경)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MICE산업(박희석·한진아)

**2011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1인가구 주거현황과 정책과제(신상영) | 한국과 일본의 1인가구 라이프스타일(박정현) | 생생리포트: 2011년 3/4분기 서울의 소득별·연령별 소비자 체감경기 전망(박희석·오동훈)

**2011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발전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노영진) | 우리나라 금융의 발전과 서울시의 과제(임형준) | 생생리포트: 서울 8대 신성장동력산업: 한류문화콘텐츠 산업(박희석·양승희)

**2011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여성 취업 현황과 고용 활성화 방안(이찬영) | 취업부모의 보육서비스 효율과 방안에 대한 해외사례(홍승아) | 생생리포트: SDI 서울지역 4/4분기 체감경기 조사 및 경제전망(박희석·오동훈)

**2012년**

**2012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5대 과제(김동열) | 서울시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평가 및 개선과제(이은애) | 생생리포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박희석·한진아)

**2012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OECD 국가 중국내 물가가 높은 이유(임희정) | 수입원재료 가격 상승이 식품물가에 미치는 영향(이용선)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가계부채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권역별 주요 산업현황과 추세(김목한·김범식) | 현장수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방향(정중식) | 생생리포트: 서울의 권역별 소비자 체감경기 특성(박희석·곽지원)

**2012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문화와 전통시장 활성화, 그 가능성에 대한 탐색(나도삼) | 현시태조사로 본 전통시장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송기철) | 생생리포트: 서울, 시장(市場), 사람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풍경(박희석·한진아)

**2012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마을공동체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김재현) | 지역문제 해결은 마을기업만의 몫이 아니다(박학룡) | 생생리포트: 작지만 강한 힘, 서울시 마을공동체기업(박희석·곽지원)

**2012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의 농업: 다양한 존재형태와 발전방향(김태곤) | 서울의 도시농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이강오) | 생생리포트: 서울 도시농업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2012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가계부채(김동환) | 건강한 주택시장을 향한 제언(홍피영) | 생생리포트: 2012년 서울, 청년취업생들의 초상(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2012년 하

반기 서울경제 전망(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층의 구인난과 중소기업 구인난 불일치 분석 및 해소방안(김영생) | 서울시 여성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통해 본 젠더 거버넌스(김영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여성(CEO)의 현황과 시사점(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실업자 추이 및 청년 실업률(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제조 중소기업의 현황과 기업규모별 발전특성 및 시사점(이동욱) |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발전방안: 협동조합금융의 제안(김자봉) | 생생리포트: 서울 물가상승 추이 및 대응방안(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선식품 및 소비자물가 추이 | 2012년 상반기 서울 가게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도시 아메니티 형성과 도시문화정책의 방향(홍호성) | 서울시 MICE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권영돈) | 생생리포트: 노후준비에 대한 서울가구 의견조사(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2012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 | 서울 아파트 평당 (3.3㎡) 전세가격과 증가율(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1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의 대형마트, SSI의 영업제한제도 시행현황 및 상생협력(강희은) |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전통시장 매출증대 효과와 향후 정책방향(김범식) | 생생리포트: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현황 및 실태(박희석·한진아) | 인포그래픽스: 서울여성(CEO) 현황 및 상위 5개 업종 | 서울 지역업체 상위 5개 업종과 자치구별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2년 12월호** | 이달의 이슈: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남기철) | 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변화(정성미)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미용산업의 특징과 자치구별 현황(박희석·양승희) | 인포그래픽스: 서울지역 고령층 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추이 | 서울시민 주거형태와 전세자금 대출 현황(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013년 1월호** | 이달의 이슈: 중산층 재건을 위한 사회안전망(김경혜) | 중산층의 변화와 대응(김용기) | 생생리포트: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

지 활성화 방안(최동욱) | 인포그래픽스: 서울 신규 구인·구직 직종(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2월호** | 이달의 이슈: 소상공인 질적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남윤형) | 소상공인 활력회복을 통한 서울시의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노희봉) | 생생리포트: 공공복지의 한계를 극복한 희망결연 프로젝트(박승돈)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석유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3월호** | 이달의 이슈: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방안(양현봉) |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동주) | 생생리포트: 맞춤형 교육을 통한 중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안해칠)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구별 전력 소비량(서울경제연구센터)

**2013년 4월호** | 이달의 이슈: 금융소외와 서울시 서민금융의 방향(박덕배) | 서울시 서민금융의 현황과 개선방안(배준식) | 생생리포트: 명동거리의 새로운 이름, 명동 화장품거리(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시 화장품 소매업 매출액(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5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문화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고정민) | 창조경제론의 부상과 서울시 대응전략(라도삼) | 생생리포트: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는 전통시장 조성사업 '통인시장의 발견 프로젝트'(김재묵) | 인포그래픽스: 과거 10년간 청년취업자 감소한 반면 고령취업자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6월호** | 이달의 이슈: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현황과 발전을 위한 과제(곽대중) | 저에너지건물 보급, 무엇이 문제인가?(김민경) | 생생리포트: 서울, 주점보다 커피전문점(서울경제분석센터) | 인포그래픽스: 서울 월평균 임금은 금융 및 보험업이 최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최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7월호** | 이달의 이슈: R&D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김연배) | 기업의 R&D 아웃소싱 활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박문수) | 생생리포트: 서울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의견조사(서울신용보증재단) | 인포그래픽스: 서울의 벤처기업 최근 5년간 1.7배로 증가(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8월호** |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 시대의 빅 데이터(정우수) | 빅 데이터와 공공 정책(전승우) | 생생리포트: 경제성장전략과 여성일자리(김태홍) | 인포그래픽스: 서울 외국인 거주자와 외국인 근로자(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9월호** | 이달의 이슈: 서울시 어르신 적합 직종 개발의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정은하) |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고령화 문제(윤민석) | 생생리포트: 기능과 미학의 경계: 다빈치 아이디어 공모(김희영) | 인포그래픽스: 서울 사회적기업(서울경제분석센터)

**2013년 10월호** | 이달의 이슈: 창조경제와 바이오 산업, 바이오 경제(이민석) | 서울의 미래, 바이오-의료산업 클러스터(남도현) | 생생리포트: 공공임대주택과 소셜믹스(오정석) | 인포그래픽스: 서울 바이오산업의 현주소(서울경제분석센터)